


2022년 연합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적질학회 ·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한국융합인문학회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다양성, 수용성 그리고 다학제간 연구

- 일시 : 2022년 12월 2일(금), 14:00~17:30
- 장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지훈회의실 
- 주최 :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발행일 | 2022년 12월01일

편집 |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전화 | 043-879-3737 / 팩스 : 043-879-3727

주소 | (우 : 27601)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인쇄처 | 인쇄와디자인(02-957-7744)

표지 디자인 | 도서출판 안복스(02-957-7780)

내지 디자인 | 도서출판 안복스(02-957-7780)

Copyright © 2022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를 금합니다.

모시는 글

「2022년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연합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제를 기획하고 발표를 구성하고 제반 준비실무를 해주신 3개 학회 구성원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합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3개 학회는 각 학회의 특성 및 강점을 인지하고 상호 연대·교류하는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향후 3개 학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점증하는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의 주제는 ‘다양성, 수용성 그리고 다학제간 연구’입니다. 열개를 말씀드리면, 1개의 기조발표와 2개의 주제발표, 2개의 자유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00년대 초 중반 우리사회에는 ‘결혼이주의 러시(rush)’가 있었고, 이때 ‘다문화 배경의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 및 청년기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학술대회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주배경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사회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문화 배경 청소년 및 청년들은 세 가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린 다문화 1세대의 자녀세대,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고려인 3세, 그리고 또다른 하나는 외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한국에서 살아가는 중도입국 자녀들입니다.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정착 과정에서 차별과 편견에 직면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문화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기조발표에서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 및 청년들이 편견의 덫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사회의 다양성의 현주소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적응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다문화 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이 어떤지를 양적연구로 점검합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최근 큰 방향을 일으킨 작품 <파친코>(이민진 作)를 통해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를 성찰하고 반면교사의 역지사지를 되새깁니다. 자유발표들 또한 우리사회의 다양성 수준을 한층 높여주기 위한 연구들로 준비하였습니다. 다문화 배경 영아의 교육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회서비스 평가제도의 개선을 모색합니다.

연합학술대회를 위해 바쁜 일상을 아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해 주신 3개 학회 소속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합학술대회가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학술적·실천적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연합학술대회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연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대신하여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임 은 의

2022년 연합학술대회

▶ 일시 : 2022년 12월 2일 (금), 14:00~17:30

▶ 장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지훈회의실,  (ID: 324 199 2502 / PW: 3631)

제1부 학술대회 | 다양성, 수용성 그리고 다학제간 연구 [14:00-16:40]

• 좌장 : 이민영 (고려사이버대학교)

시간	구분	내용
14:00~14:10	개회선언 및 인사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임은의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 박보영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14:10~14:20	10분	휴 식
14:20~14:50	기조발표 (30분)	다문화배경 청년의 정체성을 통해서 본 우리 사회의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14:50~15:00	10분	휴 식
15:00~15:20	주제발표 1 (20분)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관한 종단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권미영 (서정대학교) • 토론 : 윤동경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5:20~15:40	주제발표 2 (20분)	<파친코>를 통해 본 '다양성'의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 토론 :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15:40~15:50	10분	휴 식
15:50~16:10	자유발표 1 (20분)	증강현실을 활용한 언어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다문화배경 영아를 대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이미숙 (구립진로어린이집) • 토론 : 김혜원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16:10~16:30	자유발표 2 (20분)	다양성 수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평가일원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 서경원 (중앙사회서비스원) • 토론 :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16:30~16:40	종합토론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재근 (한국사회적질학회 회장) • 임은의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 박보영 (한국융합인문학회 회장)

한국사회적질학회 · 한국다문화복지학회 · 한국융합인문학회

2022년 연합학술대회

제2부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16:50-17:30]

• 진행 : 임은의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 극동대학교)

1.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관련 자료집 소개
2. 한국연구재단 KCI 논문유사도 검사 활용법 안내
3. 한국연구재단 KCI 인용정보검색 및 <KCI 인용지수> 안내

제3부 기관별 총회 [17:30-18:00]

1. 학회 주요 현안 보고 및 추인
2. 기타

※ 현장(대면) 참여자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다문화배경 청년의 정체성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과제 9

발표 :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관한 종단연구 27

발표 : 권미영 (서정대학교)

〈파친코〉를 통해 본 ‘다양성’의 정치 37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증강현실을 활용한 언어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다문화배경 영
아를 대상으로 47

발표 : 이미숙 (구립진로어린이집)

다양성 수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평가일원화 방안 연구 63

발표 : 서경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87

진행 : 임은의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 극동대학교)

다문화배경 청년의 정체성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과제

발표 :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다문화 배경 청년의 정체성을 통해 본 우리사회의 과제*

최소연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I. 서론

2000년대 중반 이후 이주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문화’ 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의 다인종과 다민족의 공존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다인종의 다양성을 지향하는가의 근원적 질문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는 한국사회의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의 정서와도 무관하지 않다. 오랜 기간 자리 잡은 혈통주의는 한국의 혼종적 주체 수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인종적 다문화를 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지속해서 제시된다(김민정, 2008; 심승우, 2012; 홍석준, 2018).

한국은 다문화사회 도래 이전부터 다른 인종과 민족적 배경의 시민이 공존하는 사회였다. 6.25 전쟁 전후 출생한 미군 혼혈아는 우리 사회의 외현적 다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혼혈’이라는 범주화를 통해 한국인에 내포되지 못하고 주변인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장기표, 2005). 또한 ‘혼혈’이라는 용어가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균열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은누리안’이나 ‘다문화인’이 제시되었지만, 이 용어도 ‘한국인’과는 구분되는 범주화를 통해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혼동을 야기한다(송명진, 2010).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국민정체성이 인종적-혈통적 기준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한민족과 타인종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은 ‘한민족’이 아닌, ‘혼혈인’으로 타자화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이제봉, 2012; 설동훈, 2014).

복합인종의 정체성은 인종, 국가, 민족 등 사회정체성 수준에서 논의되는데, 사회정체성은 소수인종의 주류사회 적응 및 집단 소속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유승희, 2020; Woo et al., 2019). 특히 국가 혹은 국민정체성은 한 국가에 소속된 다양한 구성원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국가에 대한 소속감으로 응집하여 인종 소수자가 한 국가의 시민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Bauer & Hannover, 2020: 811).

국가 혹은 국민정체성과 관련된 요인은 시민-영토적 요인과 인종-혈통계보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전자가 시민성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정체성을 의미한

* 본 발표는 최소연(2021a; 2021b)의 내용을 인용한 것임.

다(강원택, 2020). 따라서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는 한국 영토에 거주하는 시민임에도 인종과 혈통의 다름으로 ‘다문화’ 라는 구분된 존재의 경험을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정체성 형성 요인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시대의 조류에 의해서 영향받을 수 있음은 다문화 한국 사회에서 포용의 가치를 실제화하는 데 긍정적이라 하겠다. 강원택(2020)의 연구에 의하면 지난 15년간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¹⁾이 강화되었는데 국적의 유지나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강화되었음을 확인하면서, 한국인의 조건에 국가적 자부심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고 있고 혈연적 특성보다는 정치적·시민적 의미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피력한다. 이러한 변화는 뿌리 깊은 순혈 신화와 단일민족 정서가 다문화사회 도래로 인해 희석되고 있으며 국가 혹은 국민정체성 형성에 인종·혈통의 계보가 지배적이었던 것에서 시민-영토적 요인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일정 부분 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그동안 이주민 혹은 복합인종의 사회정체성 논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정체성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박서연, 2019; 공수연·백진아, 2021)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우세하며(박미경 외, 2019; 유승희, 2020), 당사자들의 인식 수준에서 파악한 정체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외현적 다문화의 시초라 할 수 있는 1세대 혼혈에서부터 다문화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국 시민의 정체성을 조명하면서 함의를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한국의 다문화사회 진입의 과도기에 성장한 다문화 청년은 어떠한 국민정체성을 형성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한국 다문화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통시적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과업이라 하겠다. 이에 본 발표자는 먼저,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관한 담론을 살펴보고자 하며, 다음으로 다문화 배경 청년의 정체성을 혼혈 1세대와의 비교 관점에서 논하며(기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인종적·민족적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강원택(2020)은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7가지를 제시한다. ①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것, ②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 ③ 생애 대부분을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④한국어를 사용하는 것, 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⑥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는 것, ⑦)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 것(①, ③은 지리, ⑥은 인종, ④, ⑦은 문화, ②, ⑤는 정치적 의미의 정체성)

II.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

우리나라에서 복합인종(multiracial)은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혼혈’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혼혈이 내포한 차별적 의미로 인해 UN의 권고에 따라 현재는 이중문화가정,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국제아동, 다문화인 등 주로 ‘다문화’를 포함한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된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된 시기는 결혼이주여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2000년대 중반이다. 그러나 사실상 훨씬 이전부터 한국 사회에는 다문화의 접촉이 전개되고 있었다. 대표적인 다문화 접촉점의 하나가 6.25 전쟁 전후에 미군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 출생한 혼혈이다. 혼혈(混血)은 인종이나 민족이 서로 다른 양친 사이에서 출생한 2세를 지칭한다(Wikipedia, 2021). 영어는 다인종 혹은 복합인종(multiracial, mixed-race), 혼혈(mixed-blood), 혼종화(hybridity)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1950년대 혼혈아는 한민족 정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치부되었다. 혼외자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적 위치에 노출됨과 동시에 극명하게 다른 외모로 배제의 대상이었다(김성환 외, 2005). 당시 정부는 이질적 외모의 혼혈아동을 사회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해외입양을 최우선 정책으로 펼쳤다. 이로 인해 혼혈아 대부분이 해외로 입양 보내졌으며 국내에 잔류한 혼혈아는 한국인의 내집단에 소속되지 못한 채 음지의 소수자로 생활한 것으로 보고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3; 김아람, 2009; 김통원 외, 2009; 조하나·박은혜, 2013).

197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을 중심으로 출생한 혼혈 2세대는 미군 혼혈이라는 점에서는 혼혈 1세대와 유사한 출생 배경을 갖는다. 1980년 세계화부터 2000년대 다문화사회 진입 전에 출생한 혼혈 3세대는 미군 혼혈뿐 아니라 국제결혼 아동이 혼재되고 있으며 이들의 성장은 다문화사회와 맞물리면서 혼혈과 다문화의 경계선에 있는 특성을 보인다(최소연, 2020).

혼혈 1, 2, 3세대가 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출생하고 성장했지만, 다문화사회 도래 전에 출생한 혼혈아동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노출된 공통의 경험을 갖는다. 혼혈에 관한 논의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의 공통적인 담론이 ‘차별과 배제’가 지배적이었음을 지적한다(조하나·박은혜, 2013). 특히 1세대 혼혈은 한국사회의 강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 정서에 의해 ‘우리’라는 한국인의 공동체로부터 ‘혼혈인’이라는 이질적인 타자로 범주화되어 다른 세대의 혼혈아동에 비해서 철저한 분리의 대상이었다(김아람, 2009; Lee, 2009).

혼혈인에 대한 정책과 담론이 배제를 기조로 전개된 것과는 다르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 담론은 이들의 적응과 내포를 지향한다.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다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별적인 기조가 있다는 비판 담론 또한 지속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이주민이 증가한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도로 전개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혼혈인에 관한 담론이 차별과 배제와 대부분 관련되었다면 다문화 담론은 비약적 확산에 따라 아래의 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의 의미와 관련된 담론의 확산이다. 이주민의 급증으로 인해 한국은 다문화사회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다문화 담론이 급격하게 확장되었다. 그 가운데 다문화주의와 관련된 의미의 전개에 있어 학자들 간에 혼동이 있으며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또한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정선(2011: 205)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명칭만 도용했을 뿐, 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배제되어져 온 이주자들의 권리를 확장시키고자 했던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피력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철학적으로 깊이 있는 논의 없이 단지 이주민을 중심으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거나(오경석, 2007), 한국의 특수한 다문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의 다문화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윤인진, 2012).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는 한국이 준비 없이 다문화사회와 조우하면서 다문화주의의 방향과 관련된 깊이 있는 성찰이 없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다문화 담론에서 누가 다문화의 주체인가의 이슈다. 즉, 다문화의 대상과 관련된 논의로 한국은 다문화의 대상이 이주민에게 국한되어 있고 다문화-비다문화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 정주민으로부터 이주민을 구분을 짓는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 실제, 다문화 사회 복지에서 클라이언트는 주로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여성, 다문화가정 혼혈 2세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며(김영란, 2010),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이성순 외, 2015)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이주민 중심으로 다문화를 논하고 있다. 이는 주둔 미군 혼혈과 같이 이주민이 아닌 다문화 배경을 지닌 내국인을 배제하는 실천과 정책의 지향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즉 한국의 다문화는 그 대상에 있어 내국인-이주민의 선택적 다문화의 담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다문화정책의 적절성에 관한 담론의 전개다. 다문화정책은 그 사회의 다문화주의의 정치 철학의 기초에서 논의되고 전개되어야 하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충분한 준비 없이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의 논의가 우세하다. 이는 이주민의 유입을 어떤 정책의 기초에서 전개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하고 추진한 것이라기보다는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이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갖지 않은 채 다문화정책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조현상, 2013). 한국 다문화주의 전개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학자는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의 해법으로 접근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전영준, 2009: 203), ‘다문화주의 정책’이 아니라 ‘다문화 지향’의 동화적인 성격이 강함을 지적한다(윤인진, 2008).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급조한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므로 이주노동자나

난민, 혹은 유학생 등을 배제하고 있으며(박종대·박지혜, 2014; 양경은·노범래, 2020) 오히려 한국 국민을 역차별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이종두·백미연, 2012).

이 외에도 다문화사회의 갈등이나 비판과 관련된 담론, 계급이나 젠더에 따른 다문화의 다층성에 관한 논의도 현대 한국 사회의 다문화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한경구·한건수, 2007; 원숙연, 2008; 허영식, 2012; 김영숙, 2015; 전의령, 2015).

한국의 다양한 다문화 관련 담론은 한국의 다문화주의의 방향을 제고하기 위한 성찰들로,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다문화주의의 기초가 다양한 구성원을 표면적으로는 포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층성과 범주화에 따라서 차별적 배제와 차별적 동화주의를 보인다고 지적한다(윤인진, 2008; 원숙연, 2008; 박천웅, 2013). 또한, 다문화정책의 대상이 다문화가족에 치중되어 선별적으로 접근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와(박종대·박지혜, 2014) 이주민에 대한 담론이 주류의 관점에서 전개되어 한국의 이주민은 ‘반쪽의 한국인’으로 살고 있음도 문제시한다(황경아·이인희, 2018: 85). 이렇듯 다문화와 관련된 비판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한국이 지향하는 다문화주의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Ⅲ. 다문화 배경 한국인의 정체성

정체성은 “자신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Erikson, 1956: 57). 정체성은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이 있는데, 사회정체성의 개념을 제시한 Tajfel(1972: 292)은 사회정체성을 “집단구성원으로서 감정적, 가치적 의미를 갖고 특정 집단에 연대하고 있다는 개인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정체성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초국가적 이주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접촉과정을 통해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임채완·전형권, 2006; Sue et al., 2016)은 정체성 형성의 상호작용적인 특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이주민의 정체성이 “초역사적이고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역사적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지적은(조혜영 외, 2010: 143), 다양한 인종과 민족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과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복합인종의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체성 형성의 사회적 구성과 관련하여, 한 사회가 이주민이나 인종 소수자의 이질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대상 집단의 정체성의 명확성과 정책의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Tajfel, 1972; 원숙연, 2008). 예컨대,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지 못한 혼혈인은 적극적 배제의 대상이 되지만(변화영, 2013), 가족구성에 기여하는 결혼이주여성은 포섭의 대상이 된다(원숙

연 2019). 따라서 이주민과 소수인종이 갖게 되는 정체성은 ‘우리’와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화 혹은 포용의 대상인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는 ‘타자화’를 통해 분리 혹은 해체의 대상인지로 실재화된다.

정체성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것은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제시한 정의에서 정체성이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의 실체’라 했는데, 이는 정체성의 불가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변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병준·고정은, 2013). 정체성이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관계 등 인간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인간 행위의 특징은 결과가 예측 되어질 수 없고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박혁, 2009: 83).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합인종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혼혈인과 다문화인의 정체감이 영향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Arendt(1993)는 정체성이 절대적이고 본질로서의 존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행위로서 자기의 드러냄에 기인한다고 본다. 즉, 정체성은 변화 가능성과 비규정성 안에서 구체화 된다(박혁, 2009). 이러한 논지는 강원택(2020)의 ‘한국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것에서도 확인된 부분이다.

인종, 민족, 문화, 국민, 그리고 국가 등의 사회정체성은 긍정적 기능을 하지만 역으로 부정적인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복합인종의 인종, 민족, 이중문화 등의 사회정체성은 응집력과 소속감, 그리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충한다(Phinney, 1992; 김혜성·Chung, 2019). Crisp(2010)은 정체성을 사회적 범주화의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하면서 이중 혹은 다중정체성이 차별이나 편견, 고정관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인간’이라는 범주화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내집단에 포괄하는 보편적인 범주이지만, 백인과 흑인, 이주민과 내국인 등의 범주화는 내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응집력을 갖지만, 외집단의 위치에서는 배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Goar, 2007; Crisp, 2010: 509-511). 또한 주류사회의 내집단에 내포되는 과정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내집단과 외집단의 경계에서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기도 한다(Hagendroon, 1993; Bauer & Hannover, 2020).

민족정체성은 주류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될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차별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차별을 구분하여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보호한다(Brondolo et al., 2009; Woo et al., 2019). 국가정체성은 연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토록 하는 동인이 된다. 그러나 역으로 국가정체성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며(Abrams & Hogg, 2010), 소수집단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가공물이라는 부정적인 견해에서 본다면(이희창, 2016; Miller & Ali, 2014: 237), 결과적으로 주류집단으로부터 소수인종을 배제하는 부정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복합인종의 정체성은 문화, 인종, 민족, 국가, 국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는데 이러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로 호환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문화정체성은 한 문화에 속한 구성원이 공유하는 동질감 내지는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한 자긍심 의미하며(장안리, 2019), 민족정체성은 자신의 민족적·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자기 이해의 모임을 의미한다(Phinney, 1992; 김혜성·Chung, 2019). 특정 국가 및 국민과 관련하여 자신이 갖는 신념과 감정, 그리고 소속감을 의미하는 국민정체성(박서연, 2019)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종족적-혈통적 모델과 시민적-영토적 모델로 구분된다(Smith, 1991). 종족적-혈통적 모델은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는 혈통을 중시하는 반면, 시민적-영토적 모델은 영토성과 정치적 공동체를 중시한다(윤인진·송영호, 2009; 박서연, 2019). 한국은 한민족이라는 종족과 혈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주민과 혼혈인은 국민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배제를 경험하며 타자화된다. 그러나 영토성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영토적 모델은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기 때문에(Jones & Smith, 2001), 혼혈인과 이주민이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전자와 비교해 포용적이다.

집합적인 성원 의식을 강조하는 시민정체성은 복합인종을 사회 성원으로 보기 때문에 포용성을 지향하지만, 종족성을 강조하는 국민정체성은 내집단(우리나라, 우리국민)으로부터 외집단(이주민, 복합인종)을 구별하는 배제의 태도를 보인다(Heath & Tilley, 2005). 이러한 이유로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국민 혹은 민족 집단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을 뿐 아니라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닌 모호한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설동훈, 2014). 그러나 사회 정체성이 고정적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특성이 있다는 견해를 수용할 경우(Arendt, 1993; 박혁, 2009; 조혜영 외 2010), 다문화 배경의 국민 혹은 국가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통시적인 측면에서 재해석되고 재적용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IV. 다문화 청년의 정체성

주체로서 다문화 청년의 정체성을 객체인 연구자가 언급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에 본 발표자는 다문화 배경 청년의 정체성을 주체의 인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의 변화과정 속에서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의 주체의 국민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 배경 청년세대의 정체성을 혼혈 1세대와의 비교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필벽재단¹⁾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다문화 청년을 추천받아 2021년 4월 3일-6월 7일 사이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정체성 질문은 ‘피부색이나 다른 외모(다문화자녀)로 지금까지 한국

1) 한국필벽재단은 미군 혼혈아동을 위한 민간사회복지 활동을 1960년대에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2000년대 중반까지 사각지대의 혼혈인을 지원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순수 민간자원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고 있음.

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 ‘부모의 나라에 대한 생각’, ‘대한민국이 자신에게 어떤 나라인지’, ‘한국에서 혼혈인(다문화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 청년 2명(1, 4)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의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이고 2명(2, 5)은 한국인 모와 미군 부의 미군 혼혈, 1명(3)은 모가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출생한 후 한국에 온 경우다. 이들의 국적은 이중국적(1), 한국 국적(2, 3, 4), 미국 국적(5)으로 다양하다. 2, 3, 5번은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이들 중 5번은 ‘아버지찾기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에 부의 나라에서 미국 국적 취득 후 다시 한국으로 온 경우다. 1, 5번은 외국인 부모 나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다. 3명(1, 2, 4)은 대학생이고 2명은 직장인이다(3번은 모델, 5번은 여행사 근무). 1세대 혼혈인 다섯 명은 한국에서 출생한 미군 혼혈로 한국 국적이다. 두 명은 외삼촌 호적에 입적되었으며, 한 명은 계부의 호적에, 그리고 두 명은 고아원에서 호적을 만들었다. 인종적 특성으로는 네 명은 백인혼혈이며 한 명은 멕시코계다.

다문화 청년과 혼혈 1세대의 정체성은 <표 1>과 같았다.

<표 1> 1세대 혼혈인과 다문화 청년의 정체성 비교

	1세대 혼혈인	다문화 청년
출생과 성장	부도덕한 출생: 용납할 수 없는 존재 타자화를 통한 배제	놀림의 대상이 된 다문화 차이: 부담과 불편함
국민정체성	나를 버린 나라, 그래도 한국인	이중문화 정체성의 한국인
혼혈과 다문화의 의미	박탈과 혼돈의 삶	기회와 축복

1. 출생과 성장

1) 놀림의 대상이 된 다문화

다문화 청년은 다른 외모나 문화의 차이로 인해 주변에서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그 정도와 빈도는 1세대 혼혈인의 경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놀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군부대 기지촌에서 출생한 참여자와 어머니와 생활했던 참여자는 1세대 미군 혼혈인과 유사한 출생 배경과 외모로 아동기에 놀림 받은 경험을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화와 다문화사회 도래 이후에 변화된 영향도 있겠지만 성장한 지역사회의 환경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동두천에서 출생과 성장 경험이 있는 참가자

는 본인과 유사한 배경의 아동들과 유년 시절을 보내며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여 외모의 차이로 인한 차별의 경험이나 주류집단으로부터의 배제 경험이 적었으며, 본인을 “한 사람, 한 아이” 라는 정체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시아계 어머니를 둔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참여자들은 외모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며 친구들은 자신을 토종 한국인이라고 표현한다고 말하였다.

2) 차이 : 부담과 불편함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다. 주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자기개념 형성과 국민으로서의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 청년의 경험은 외현적으로 다문화인지 알 수 있는 경우와 외현적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따라 대응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외현적 차이가 명백한 다문화의 경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다른 외모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불편하게 생각하며, 부담을 느끼거나 상처받기도 하고, 주변 시선과 부정적인 반응으로부터 회피하기도 한다. 반면 외모에 있어 차이가 없는 경우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타인에게 선제적으로 노출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영유아기에는 복합인종이라는 사실에 대한 순응적이었던 태도와는 다른 양상으로, 주변의 보편적인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자신의 모습이나 다른 인종적인 특성으로 인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국민정체성 : 이중문화 정체성의 한국인

다문화 청년의 대한민국 국민정체성은 혼혈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혼혈인 모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지만, 다문화 청년은 양육과정과 이중문화 경험, 국적 등 여러 요인의 영향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차이를 보인다. 다문화 청년의 이중문화 정체성은 외국부모 국가의 경험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은 외현적 차이보다는 양육과정의 경험이 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 엄마와 단둘이 생활하였으나 이국적인 외모로 미국인이라는 말을 들은 참여자는 자신이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모친과 생활한 아프리카계 한국인은 본인은 무조건 한국인이고 한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강한 소속감을 보인다. 한국에서 태어나 계속 한국에서 자랐지만 70~80%의 한국인이라고 말한 참여자도 있다. 외국인 부모 나라의 경험은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모의 나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자신이 완전한 한국인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한국에서 출생과 성장의 경험이 있으나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지내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참여자는 토종 한국인 마인드의 미국인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복합인종의 경우 부모의 이중문화에 노출되면서 이중문화에 대한 수용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혼혈인의 경우는 외국인 부의 양육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중문화의 정체성은 형성되지 않았으나 다문화 청년은 부모의 양육경험과 외국인 부모 나라의 경험, 국적 등에 의해 국민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국민정체성은 단지 다문화의 배경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성장배경의 경험과 그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포용의 가치 등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양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문화 청년 세대가 이중문화 정체성의 강점은 선호하면서도 외현적 차이가 없을 경우에 다문화가정임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은 미완성의 다문화사회임을 방증한 결과라고 하겠다. 한국 사회가 다름의 가치를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3. 다문화의 의미 : 기회와 축복

혼혈인과 다문화 청년의 한국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혼혈과 다문화의 의미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혼혈인의 삶이 송두리째 박탈당한 것이라면 다문화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이다. 이러한 극단의 현상은 혼혈인이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삶의 환경에서 성장한 것과 달리, 다문화 청년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공적 및 민간서비스의 자원의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혼혈인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박탈과 혼돈의 삶’이었으며,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박쥐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문화 청년의 외모와 다문화가족이라는 독특성은 한국에서 자신들만의 ‘기회와 축복’으로 인식하였다. 다문화 청년은 대학생으로서의 적응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다른 외모와 이중문화의 경험이 사회생활에 강점으로 작용하여 전문 직업인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혼혈인과 다문화 청년의 혼종적 주체라는 동일성이 시대의 지배적인 관점에 의해 다른 양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파악한 결과로 정체성이 “초역사적이고 고정된 실체라기보다는 역사적 변화에 열려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조혜영 외(2010)의 지적을 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V. 제언

이주민에 대한 포용을 ‘해체-분리-동화-포섭-적극적 포용(환대)’의 스펙트럼에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적용해 볼 때(최소연, 2020: 134), 과거 혼혈인은 이주민이 아니었음에도 복합인종이라는 외현적인 차이로 인해 해체와 분리의 지점에서 ‘타자화의 배제’를 경험하였다면, 다문화 배경 청년에게는 한국 사회의 포용과 배제의 스펙트럼이 이들의 정체성이나 삶에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이들이 다문화 배경을 갖는 청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지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굳이 다문화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다문화가정임을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노출하지 않은 것은 ‘다문화’라는 범주화가 또 다른 배제의 단어로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부분이다. 이에 다문화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종 소수자의 정체성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 탈범주화의 지향을 제언한다. 혼혈-순혈, 다문화-비다문화 등의 사회적 범주화는 편견, 차별, 고정관념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대 ‘그들’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집단 중심이 아닌, ‘나’와 ‘당신’의 각 개인의 상호작용 관계를 장려하는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를 지향해야 한다(Gaertner et al., 2010). ‘다문화가족’, ‘다문화학생’,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등의 ‘다문화’라는 범주화와 이러한 범주화에 초점 둔 정책과 실천을 강조하는 한, 차별과 배제 혹은 역차별의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큼을 주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한국 시민으로서의 새로운 범주화를 제언한다. 다문화사회는 다양한 구성원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상호교류를 통해 구성원을 상호 이해하는 정교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Giddens, 2007). 이에 비다문화-다문화라는 범주화의 탈범주화 뿐 아니라 ‘한국 시민’으로 새로운 범주화를 통해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하나의 구성원 됨을 향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숙한 철학적인 기초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방향이 재편되어야 한다. ‘여러 이주민 집단의 효용성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으로 다문화정책이나 실천의 대상에서 배제된 소수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피할 수 없는 다문화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치와 새로운 가치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어떠한 공동의 가치로 다양성의 연대를 추구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별적이며 급조한 다문화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환골탈태의 방향 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급변하는 다문화 환경에서 변화되고 싶지 않은 구성원들의 전통적 가치를 비판하기 전에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 또한 다름의 가치로 포용하는 것이 진정

한 다문화의 지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문화사회를 거부할 수 없듯이, 지금까지 고수되는 전통의 가치 또한 쉽게 배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의 전통적 가치 또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다름의 문화로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교한 다문화주의에서 볼 때, 문화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은 각각의 다름의 인정을 넘어서서 문화 간의 상호적인 이해를 통해 공통의 정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기 위해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한국의 다문화가 지향하는 최선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논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적 포용에 있어 국민국가의 강한 정체성과 순혈주의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순혈의 의미는 점진적으로 퇴색되고 있으며 가부장적인 문화도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인종-혈통에 기초한 국민정체성에서 시민-영토의 요인으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의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포용하는 기다림의 미학이 서로에게 필요할 것이다” (최소연, 2019).

셋째,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 (Tylor, 1994)가 무엇인지 깊이 있는 통찰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진영논리가 우세한 한국 사회는 현재 다름을 수용하지 못한 많은 균열지점이 있다. 초록동색은 계층 간, 세대 간, 이념 간, 인종 간 균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집단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가 과연 외집단을 얼마나, 진정하게 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문화의 포용을 논하기 이전에 한국 사회 내의 다름을 포용하며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원택(2020).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15년의 변화 (EAI워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pp. 1-21.
- 공수연·백진아(2021). 대학생의 국민정체성, 다문화수용성이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87-110.
- 국가인권위원회(2003). **기지촌 혼혈인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김민정(2008).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의 성장: ‘여러 종류의 한국인이 가족으로 살아가기. **한국문화인류학**, 41(1), 51-89.
- 김성환 외(2005). 혼혈아동들의 사회적 편견. **고려교육정책학**, 4(1), 97-111.
- 김아람(2009). 1950년대 혼혈인에 대한 인식과 해외 입양. **역사문제연구**, 22, 33-71.

- 김통원·윤재영·이종환(2009). 한국전 혼혈인의 차별에 관한 기술적 연구. **사회과학**, 42(1), 71-84.
- 김혜성·Grace H. Chung(2019). 다문화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 분석: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 요인 비교. **가정과삶의질연구**, 37(4), 57-70.
- 박미경·차용진·이홍재(20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성향접수매칭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2(3), 107-140.
- 박서연(2019).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35(1), 19-31.
- 박종대·박지혜(2014). 한국 다문화정책의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문화정책논총**, 28(1), 35-63.
- 박천웅(2013). **‘혼종적 담론비판분석’으로 본 한국의 다문화담론 비판**.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 박혁(2009). 다문화 사회 안에서의 정체성과 다원성의 문제: 한나 아렌트의 정체성과 다원성 개념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7(2), 68-93.
- 변화영(2013). 혼혈아의 차별적 시선과 대응적 정체성: 백인민의 「블랙조」와 전관용의 「미끼」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49, 205-230.
- 설동훈(2014). 국제결혼이민과 국민·민족 정체성: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자아 정체성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103, 278-312.
- 송명진(2010). 소외된 혼혈의 서사화, 그 기원의 탐색. **국제한국어문화학회 제10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pp. 89-110.
- 심승우(2012). 이주민의 포용과 다문화 정치통합의 전략. **디아스포라연구**, 6(2), 81-110.
- 오성은(2019).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정체성 구성 경험에 대한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22(1), 27-47.
- 원숙연(2019). **다문화사회의 다층성: 인종적 다양성을 둘러싼 정책적 편입과 배제**.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 _____(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29-49.
- 유승희(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134-158.
- 윤인진(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 윤인진·송영호(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pp. 579-591.
- 이제봉(2012). 한국의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교육연구**, 5(1), 199-215.
- 이희창(2016). 국가 정체성 유형별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1), 1-28.
- 임채완·전형권(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네트워크**. 한울아카데미.
- 장기표(2005). 혼혈인 문제의 해결방안. **국제가족한국총연합회 창립자료집**.
- 장남혁(2016). 모국방문 프로그램을 통한 한필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문화정체성 형성. **선교신학**, 29, 93-123.
- 장안리(2019). Korean American 용어에 대한 재미한인들의 개념 정의 및 내포에 대한 연구. **다문화사**

- 회연구, 12(2), 321-354.
- 전병주(201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국민정체성에 관한 연구: Heater의 이론을 적용하여. **디지털융복합 연구**, 12(4), 33-41.
- 조민경·김렬(2011). 한국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이주민의 이중문화정체성과 사회문화 적응의 관계. **한국정치학회보**, 13(2), 263-289.
- 조병준·고정은(2013).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국민정체성 고찰. **언어와 문화**, 9(3), 301-327.
- 조하나·박은혜(2013). 혼혈에 대한 사회적 의미: 1950년~2011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4, 367-407.
- 조혜영(2021).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과정 및 적응지원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4), 311-335.
- _____ (2017). 다문화가족 지원과 역차별 이슈 인식 고찰: 취약집단 서비스 담당자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1(3), 135-159.
- 조혜영 외(2010). 해외한인 청소년과 민족정체성의 의미: 한국을 일시 방문 중인 해외 한인 청소년들과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이민학**, 1(1), 139-187.
- 최소연(2021a). 1세대 혼혈인과 다문화 청년 세대의 정체성과 탄력성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12(3), 5-44.
- _____ (2021b). 한국 혼혈아동을 위한 펄 벅(Pearl Buck)의 민간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연구: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5(2), 5-27.
- _____ (2020). 포용과 배제 관점에서 본 혼혈인과 다문화인의 사회적 의미: 1920~2019년 신문기사 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11(3), 103-141.
- _____ (2019). 한국의 다문화복지: 포용적 포섭인가 차별적 배제인가. **2019년 한국다문화복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1-19.
- 홍석준(2018). 현대 한국에서의 다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다문화와 인간**, 7(12), 153-192.
- 황경아·이인희(2018). 다문화 담론 지형의 변화와 언론의 재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다문화 관련 기사분석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1), 85-119.
- Abrams, D., & Hogg, M. A. (2010). Social identity and self-categorization. In Dovidio, J. F., et al. (Eds.),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 179-193). London: Sage.
- Arendt, H. (1993). Philosophie und politik. *Deutsche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41, 381-400.
- Bauer, C. A., & Hannover, B. (2020). Changing “us” and hostility towards “them”: Implicit theories of national identity determine prejudice and participation rates in an anti-immigrant peti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0, 810-826.
- Brondolo, E., et al. (2009). Coping with racism: A selective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ritique.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32(1), 64-88.
- Crisp, R. J. (2010). Prejudice and perceiving multiple identities. In Dovidio, J. F., et al. (Eds.), *The*

-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 508-525). London: Sage.
- Derrida, J. (1977).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역. 동문선.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 Gaertner, S. L., Dovidio, J. F., & Houlette, M. A. (2010). Social categorization, 32. In Dovidio, J. F., et al. (Eds.), *The SAGE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pp. 526-543). London: Sage.
- Giddens, A. (2007). *Over to you, Mr. Brown*. Cambridge, UK: Polity Press.
- Goar, C. D. (2007).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reduction of inequality: Can cross-cutting categorization reduce inequality in mixed-race group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5(4), 537-550.
- Hagendroon, L. (1993). Ethnic categorization and outgroup exclusion: Cultural values and social stereotypes in the construction of ethnic hierarchies. *Ethnic and Racial Studies*, 16(1), 26-51.
- Heath, A. F., & Tilley, J. R. (2005). British national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n Multicultural Societies*, 7(2), 119-132.
- Jones, F. L., & Smith, P. (2001). Diversity and commonality in national identiti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cross-national patterns. *Journal of Sociology*, 37(1), 45-63.
- Lee, M. (2009). Mixed race peoples in the Korean national imaginary and family. *Korean Studies*, 32, 56-85.
- Miller, D., & Ali, S. (2014). Testing the national identity argument.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 237-259.
- Phinney, J. S. (1992). The multigroup ethnic identity measure: A new scale for use with diverse group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7(2), 156-176.
- Smith, A. D. (1991). *National identity*. London: Penguin Book.
- Sue, D. W., Rasheed, M. N., & Rasheed, J. M. (2016). *Multicultural social work practice* (2nd Ed.). NJ: Wiley.
- Tajfel, H. (1972). Social categorization, English manuscript of “La catégorization sociale. *Sociale*, 1 (pp. 272-302). Paris: Larousse.
- Taylor, C. (1994). Multiculturalism: Examining the politics of recognition. In Giddens, A. (Ed.) (2007). *Over to you, Mr. Brown*. Cambridge, UK: Polity Press.
- Wikipedia (2021). **혼혈**. <https://ko.wikipedia.org/wiki/>
- Woo, B., et al. (2019). The role of racial/ethnic identity in the association between racial discrimination and psychiatric disorders: A buffer or exacerbator?. *Population Health*, 7, 1-1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에 관한 종단연구

발표 : 권미영 (서정대학교)

다문화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상호관계

다양성, 수용성 그리고 다학제간 연구_ 주제발표 1

한국융합인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Converging Humanities



Korean Academy
of
Multicultural
Welfare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시질·한응인·한디복
2022 연합학술대회

- 발표: 권미영 (서정대학교사회복지과강사)
- 일자: 2022. 12. 02.
- 장소: 고려대민족문화연구원지훈회의실

Contents

1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분석결과
5	결론 및 함의

1. 연구목적

다문화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

청소년기의 건강

- 그들의 성장에 필요한 기본요건
- 성인기의 건강으로 이어짐

>> 건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 및 발달되는 시기
-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

>> 사회적 관계는 청소년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다문화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주목해 옴
- 다문화 청소년의 관계적 요인(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 등)들을 매개 또는 조절 요인으로 봄

>> 포괄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3

2. 이론적 배경



청소년 건강

- 건강이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WHO, 1946)
-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심리적 건강도 살펴봐야 함
- 대표적으로 우울, 자아존중감



청소년 사회적 관계

-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 관계자원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요
- 청소년의 사회적 연계망(예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이 상호작용하여 청소년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줌
- 부모는 가족, 또래는 학교 및 교우 관계, 교사는 학교 및 교육을 대표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는 스트레스와 정서심리적 압박을 완화시켜, 청소년의 정서심리적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신체적 건강 증진 토대를 마련해 줌
- 청소년의 흡연은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될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4

3. 연구방법

연구모형

-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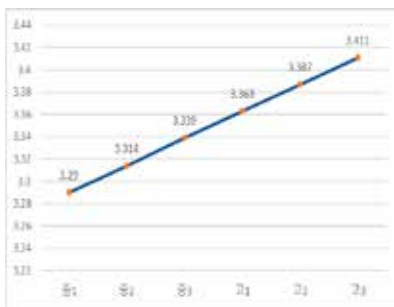
- 다문화청소년패널 1기(MAPS 1)
- 4차년도~9차년도(중1~고3)

측정 변수

- ◎ 다문화 청소년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우울
 - 자아존중감
- ◎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관계
 - 부모와의 관계
 - 교우관계
 - 교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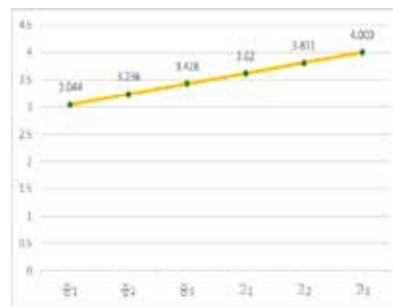
4. 분석결과

다문화 청소년 건강 발달궤적



미지수(parameter)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치	3.29(.003) ^{**}	.104(.005) ^{**}
변화율	.121(.015) ^{**}	.150(.011) ^{**}
초기치-변화율의 상관		-.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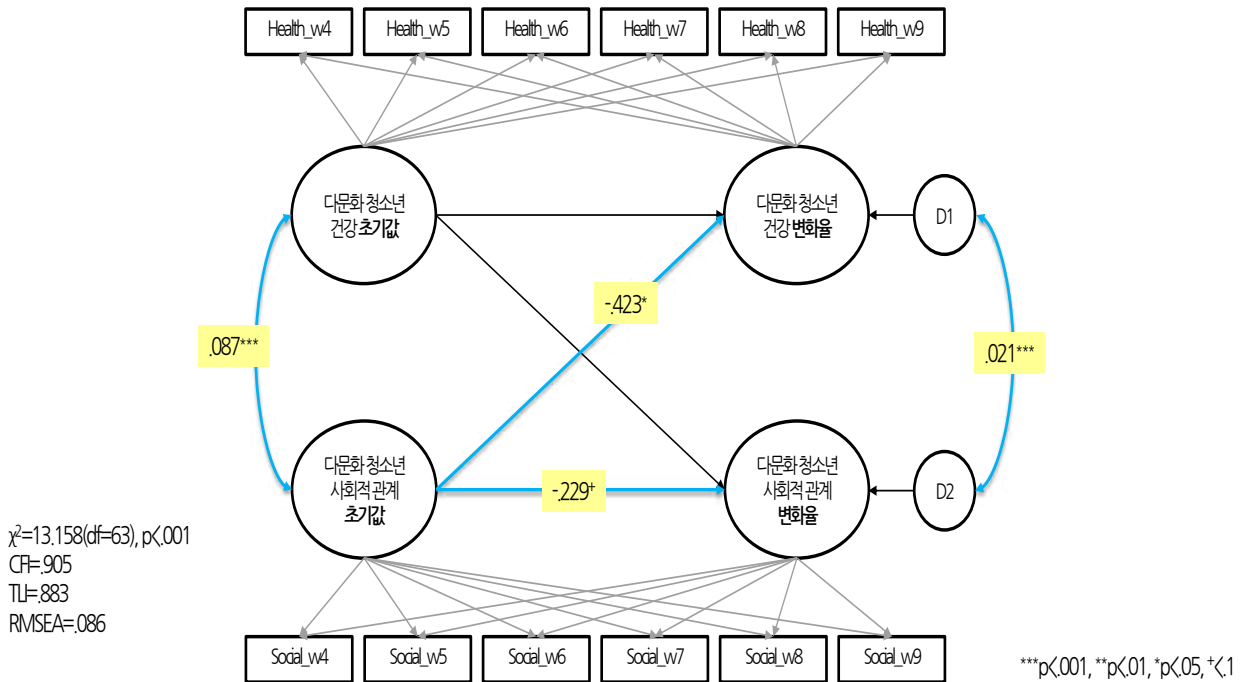
다문화 청소년 사회적 관계 발달궤적



미지수(parameter)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치	3.04(.003) ^{**}	.060(.005) ^{**}
변화율	.500(.017) ^{**}	.144(.015) ^{**}
초기치-변화율의 상관		.355 ^{**}

***p<.001, **p<.01, *p<.05, †<.1

4. 분석결과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7

5. 결론 및 함의

다문화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경향

- 중학교 1학년 때에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는 개인차가 있음.
-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정도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남.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에 주목해야 함

- 종단적 건강변수의 투입 후 사회적 관계가 좋은 다문화 청소년은 건강증가속도가 느리고, 사회적 관계 증가속도도 느림.
- 사회적 관계가 낮았던 청소년은 건강증가속도 빠르고, 사회적 관계의 증가속도 빠름.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계형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
 부모 교육,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지시망 확보**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8

감사합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대한 토론

윤동경

(서울여자간호대 연구교수)

1.

권미영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 저는 연구자로서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주제로 토론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권미영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유소년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에 반해 본 발표문의 연구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인구는 1990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국제결혼 등으로 2012년 4.7만 명에서 2021년 16만 명으로 약 3.4배 정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의 자녀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은 팔목할 만한 점입니다.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고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이민 2세대인 다문화 가족 자녀가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를 종단적 연구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

한국이 이민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990년대부터 외국인 유입, 농촌 총각들의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우리사회의 다문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외국인 집단 가운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의 경우 이민 1세대인 결혼이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민 2세대인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경우 학습능력 증진, 인적자본을 발전시키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 자녀 즉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본 발표문을 바탕으로 본 토론문에 몇 가지 기술하고자 합니다.

- 1) 본 발표문의 발표자께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 각각의 발달궤적을 살펴 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Meredith & Tisak, 1990)을 분석하셨습니다. 잠재성장모형은 각 차수에 반복측정 된 자료를 측정 변인으로 하여 잠재변인을 형성하여 개인 내 변화를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므로, 잠재변인은 기준시점의 측정치인 초기 값(intercept)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변화율(slope)로 형성됩니다. 이 두 변인의 평균과 분산을 바탕으로 시간에 따른 발달궤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인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종단적 상호관계의 발달궤적이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모형은 2개 이상의 발달궤적, 즉 복수의 잠재성장모형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도록 확장된 모형으로 생애과정관점을 적용하여 개인 내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에 알맞은 모형이며 이를 확장한 잠재성장모형은 다문화 청소년의 맥락에서 건강과 사회적 관계 간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알맞은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관련 변수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자아존중감을 투입함으로써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서·심리적인 건강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주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모, 친구, 선생님을 주요변수로 투입하여 여러 관점에서 시사점과 함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수의 소개 부문에서도 일차자료 수집의 경우와는 달리 이차자료(다문화 청소년패널 1기) 분석에 있어서 원자료에서 각 변수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3) 본 발표문의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발달 궤적을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발달 궤적이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재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카이제곱 값이 13.158(df=63, p<.001)이며 CFI=.905, TLI=.883, RMSEA=.086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모델은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본 연구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다문화 청소년 가정의 부모의 학력, 경제 상태를 고려한 변수들의 측정을 살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4

본 연구의 대상과 주제는 상당한 연구가치와 함의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토론자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을 살펴보고 고민해 주신다면 토론자로서 보람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가 더욱 발전된 방향과 성과로 완성되길 바라며, 관련 분야에 유용하게 잘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발표문을 준비해주신 권미영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파친코>를 통해 본 ‘다양성’의 정치

발표 : 박보영 (극동대학교)

<파친코>를 통해 본 '다양성'의 정치

다양성, 수용성 그리고 다학제간 연구_ 주제발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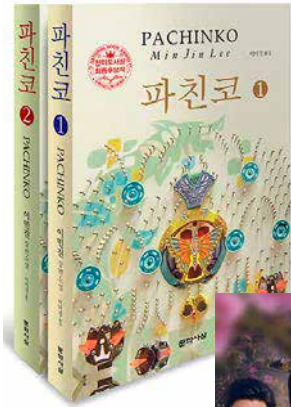


- 발표: 박보영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일자: 2022. 12. 02.
- 장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지훈회의실

Contents

- 1 작품 <파친코>의 열개
- 2 <파친코>에 대한 사회정치적 접근: 혐오, 배제, 통제의 정치
- 3 <파친코> 사회정치적으로 훑어보기
- 4 '다양성'의 정치를 향하여: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1. 작품 <파친코>의 열개



- 1920년대~1989년 한국(조선, 일본, 미국)
- 3대에 걸친 이민가족사(*일제시대 가족단위 노동이민)
- 일본에서 2등 국민 취급 받는 자이니치(在日교포)
 - 조선적(*무국적자) → 외국인등록증(*지문 날인)
 - 조선인은 '더러운 피'
 - 부라쿠민(천민) 아래 재일조선인
 - 오사카 이카이노 猪飼野(*현 오사카 코리아타운 츠루하시)
 - 자이니치에 대한 극심한 차별 → 정상적 사회진출 X
 - 야쿠자, 배신, 도둑
 - 일본 정부는 조선인 원폭 피해자 외면
- 파친코 = 천시 받는 직업
- 모계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삶을 그림. ≪비교≫ 대부2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3

1. 작품 <파친코>의 열개



- 주요 인물 : 1세대(한수, 선자, 이삭) - 2세대(노아, 모자수) - 3세대(솔로몬)
- 주변 인물 : 1세대(요셉, 경희) - 2세대(에츠크) - 3세대(하나, 피비)
- 주요 사건 : 관동대학살, 원폭, 분단, 버블경제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4

2. <파친코>에 대한 사회정치적 접근

‘희생자 비난하기’, ‘최하층계급(underclass)화 하기’

“마이너리티(식민지 출신 이주민)를 희생양 삼아 체제 위기와 모순을 은폐한다”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5

3. <파친코> 사회정치적으로 훑어보기

[혐오] 혐한의 내면화 : 조선인은 더러운 피

- “노아는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았지만 김치 냄새 때문에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 원래도 다른 조선 학생들처럼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이제는 옷에서 항상 양파와 고추, 마늘, 새우젓 냄새가 났기 때문에 선생님도 노아를 교실 뒤쪽에 앉혔다. 그곳은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조선 아이들이 앉는 자리였다. 집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돼지라고 놀림을 받았다. 일본 이름이 노부오인 노아는 돼지 아이들과 함께 앉았고, 마늘 자식이라고 놀림 받았다.” (소설 1권, p. 254)
- “야쿠자는 일본에서 가장 더러운 인간이에요. 그들은 폭력배에 범죄자라고요... 내가 야쿠자의 돈을 받아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 더러운 오명은 절대 씻어낼 수가 없어요... 날 엄마가 더럽게 만들었어요... 어리석은 엄마에 범죄자 아버지라니, 난 저주받았어요.” (노아, 소설 2권, p. 123)
- “조선인으로 살았던 삶이 아직도 노아의 가슴 속에 새카맣고 묵직한 바위처럼 박혀 있었다. 자신의 정체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소설 2권, p. 191)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6

3. <파친코> 사회정치적으로 훑아보기

[배제] 자이니치 : 부유하는 2등 국민

- “이 나라는 변하지 않아. 나 같은 조선인들은 이 나라를 떠날 수도 없어.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고국으로 돌아간 조선인들도 달라진 게 없어. 서울에서는 나 같은 사람들을 일본인 새끼라고 불러. 일본에서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근사하게 차려 입어도 더러운 조선인 소리를 듣고, 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모자수, 소설 2권, p. 220)
- “왜 일본은 아직도 조선인 거주자들의 국적을 구분하려고 드는 거야? 자기 나라에서 4대째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말아야. 넌 여기 태어났어. 외국인 아니라고! 이건 완전 미친 짓이야. 네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왜 너희 두 사람은 남한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정말 이상해.” (피비, 소설 2권, p. 314)
- “(하나) 난 도망쳤어. 인생을 다 낭비했어. 넌 그러지마.” (솔로몬) 난 늘 그들의 규칙을 따랐어. 시키는 대로 다 했어. 제대로 농락 당했어. “(하나) 이제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그만해. 무슨 수를 쓰든 다 손에 넣어.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지마. 그들이 우리에게 자비를 보인 적 있어? 다 밟아 버려.” (하나 솔로몬, 드라마 S1, 8화)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7

3. <파친코> 사회정치적으로 훑아보기

[배제] 자이니치, 차별 그리고 파친코

- “조선인들에게는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 너희 아버지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파친코를 선택한 게 분명해... 일본의 많은 곳에서는 아직도 조선인들을 교사와 경찰, 간호사로 고용하지 않아.” (솔로몬의 직장선배가즈, 소설 2권, p. 327)
- “(솔로몬) 미국은 정답이 아니라 환상이에요.” ... “(모자수) 파친코? 네가?” “(솔로몬) 아빠와 할매가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모자수) 나한테는 그래도, 내 아들한테는 아니야. 그놈이 너한테 뭐라고 했을지 뻔해. 다 합법이라고 했겠지. 난 허락 못한다. 세상 모든 부를 준다 해도.” (모자수 솔로몬, 드라마 S1, 8화)
- “살아남는 게 다가 아니야. 살아남는 건 바퀴벌레도 해. 우리도 그걸로 만족해야 할까? 네 주변 그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돼. 조선인들만이 아니라 일본인들까지. 그 누구도 널 무시할 수 없도록 실력을 쌓아. 그 자리에 오르면 놈들은 널 싫어할 거야. 하지만 아무리 널 싫어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 앞만 봐. 언제나 앞만 보는 거야. ... 바보들이나 돌아가는 거야. 바보로 살지마.” (한수 어린 노아, 드라마 S1, 8화)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8

3. <파친코> 사회정치적으로 훑어보기

[통제+배제] 이카이노(猪飼野), 내부식민인, 기본권 침해

- “이카이노는 일종의 잘못 만들어진 마을이었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판잣집들은 모두 똑같이 값싼 자재들로 영성하게 지어져 있었다… 이곳은 돼지들과 조선인들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요셉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고향집 같지 않지?” (소설 1권, p. 160)
- “대한민국과 연관되어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가난에 시달리는 그 나라는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소설 2권, p. 166)
- “북한으로 돌아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일본에는 남한보다 북한과 연관된 국적을 소지한 조선인들이 아직 더 많이 있었다.” (소설 2권, p. 220)
- 소설에서 에츠코는 계자인 14살 솔로몬이 외국인등록증(현 재류카드)을 발급받기 위하여 지문을 날인하고 등록증을 목에 걸고 다녀야 하는 것에 분개함(*일본에선 지문 날인을 주로 범죄인들 대상으로 함).
- 자이니치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음. 이를테면 참정권이 없고, 한국계 학교(특히 조선학교)는 보조금 지원도 없고 고교무상화에서도 제외됨.
- 자이니치들은 직업선택도 제한 되었음. 주류, 지배엘리트가 될 기회 원천봉쇄 당함.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9

4. ‘다양성’의 정치를 향하여

- ‘오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혐오와 배제의 사회학**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허탈감, 시기심, 불만, 분노, 우울감, 불안 등에 빠지기 쉽고, 이런 상태에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생긴다. 불황, 재난, 전쟁, 감염병 등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혐오가 확산되는 이유이다.” _법학자 홍성수
- ‘내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공존 그리고 건강한 사회**
“인간은 다양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연이 찾은 최종 답안은 다양성이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언제나 결과적으로… (다양성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살 만한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양함을 즐길 줄 아는 태도가 중요하다.” _생태학자 최재천
- 다양성, 공생 그리고 ‘정치’
- **정치의 ‘본령’**은 공동체를 유지, 존속, 진화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통합과 혁신에 복무**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는 **다양성과 포용성, 개방성**을 추구하고, 또한 이를 공동체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같은 이유에서 **약자들의 목소리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작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 **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면, ‘계급차별+민족차별’ → 언더클래스 → 적개심 → 외로운 늑대양산**

2022-12-02

2022 하반기 연합학술대회

10

- 소설 <파친코> 1,2 (이민진, 2018, 이미정 옮김, 문학사상)
- 드라마 <파친코> 시즌 1 (애플tv, 2022)
- 최인철(2021). 혐오의 기원. 최인철 외,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 마로니에북스.
- 홍성수(2021). 혐오현상의 이해와 과제. 최인철 외,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 마로니에북스.
- 최호근(2021). 홀로코스트. 최인철 외, **헤이트, 왜 혐오의 역사는 반복될까**. 마로니에북스.
- 최재천(2022.1.6). 인간이 신을 믿는 이유는 알고보면 과학적이다? 종교를 믿는 과학적인 이유!. **유튜브 최재천의 아마존**.
- 권미영·박보영(2013). 푸코의 권력이론으로 본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주체화 문제: 영화 <완득이>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접근. **한국융합인문학, 1**, 27-50.
- Said, E.W., & Hitchens, C. (Eds.) (2001). *Blaming the victims* (Subsequent Ed.). Verso Books.
- Piven, F.F., & Cloward, R.A. (1993). *Regulating poor* (Updated Ed.). Vintage.
- Morris, L. (2002). *Dangerous class: The underclass and social citizenship*. Routledge.
- Castles, S. (2000). Underclass or exclusion: Social citizenship for ethnic minorities. In Vasta, E. (Ed.), *Citizenship, community and democracy* (pp. 22-44). Palgrave Macmillan.
- Kronauer, M. (1998). Social exclusion and underclass. In AndreB, H.J. (Ed.). *Empirical poverty research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pp.) Routledge.
- MacDonald, R. (Ed.) (1997). *Youth, the underclass and social exclusion*. Routledge.

감사합니다

「<파친코>를 통해 본 ‘다양성’의 정치」에 대한 토론

송시형

(국제사이버대학교 영상문화학부 교수)

이민진 작가의 디아스포라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소설 <파친코>는 ‘역사는 우리를 저버렸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로 시작합니다. 작가의 이와 같은 선언적인 문장은 격동의 시기였던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어 1989년까지 4세대에 걸친 한 가족의 처절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 낸 삶의 연대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발표문은 원작 소설과 Apple TV+를 통해서 방영된 드라마 <파친코> 시즌 1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성’의 정치라는 큰 틀에서 사회정치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혐오, 배제, 통제라는 키워드를 통해 낙인과 차별이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마이너리티이자 디아스포라인 재일교포들의 삶을 사회정치적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드라마 <파친코> 시즌 1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원작 소설과는 달리 영상 포맷에 맞춰 각색된 드라마 <파친코>는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소설과는 달리 작품상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계속 교차하면서 진행됩니다. 교차 편집의 타이밍은 극의 흐름에 맞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주인공 선자의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된 선자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도 4세대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교차편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동기에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굴곡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삶 속에서 한 인간(개인)의 삶이 이국만리 타향에서 어떻게 디아스포라로 변주되는지를 입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족사를 통해 재일교포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겪는 차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드라마 <파친코>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한국계 미국인 코고나다 감독이 연출한 1~3화, 7화의 내용입니다. 1~3화에서 선자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여인들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7화의 내용은 원작 소설에는 없는 부분으로, 야쿠자의 길을 가기 전 한수의 꿈과 좌절 그리고 각성을 보여줍니다. 7화에는 이러한 메시지를 효율적이고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화면비를 인물의 클로즈업에 최적화된 크기인 4:3으로 진행합니다. 관동대지진이 일어난 직후부터는 전체적으로 회색 톤과 붉은색 톤을 사용하여 영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1923년 관동대지진은 당시 벌어졌던 광기 어린 인간들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보여줍니다. 공포가 집합감정(Collective Emotions)을 만들어 내면서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전이되는 과정을 한수의 입장과 시점에서 입체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억압과 차별의 역사로 만들어진 왜곡이 어떤 형태로 다양성을 저해하고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발표도 <파친코>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잘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성을 이루는 정치를 강조하면서 정치의 본령이 사회통합과 혁신에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잘 분석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이 작품과 연구발표를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사회정치적 문제를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표자의 이 연구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후속연구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언어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다문화배경 영아를 대상으로

발표 : 이미숙 (구립진로어린이집)

증강현실을 활용한 언어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 - 다문화배경 영아를 대상으로 -

발표자 : 이미숙

일 자 : 2022. 12. 2.

장 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지훈회의실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개발 및 효과검증의 의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보육환경의 변화

첫째, 4차 산업시대의 도래

둘째, 다문화 보육의 보편화

셋째, 보육환경의 변화

보육환경 변화에 대응

첫째,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영아 프로그램 개발 필요

둘째, 다문화가정 영아 언어발달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필요

셋째, 보육현장 중심 놀이 프로그램 개발 필요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목적

말늦은 다문화가정 영아를 위해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보육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 하는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 문제

- (1)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목적, 목표, 내용, 중재전략, 평가)은 어떠한가?
- (2)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이 말늦은 영아의 언어 능력, 어휘력, 의사소통 기능 적용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 ◎ S시 G구에 소재한 10개 어린이집의 만 2세 영아 총 30명
 - ⇒ 실험집단: 말 늦은 다문화가정의 영아
 -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에서 언어발달을 제외한 모두 영역은 정상으로 판정된 영아 10명
 - ⇒ 비교집단 1: 언어발달을 포함한 모든 발달에서 정상인 다문화가정의 영아 10명
 - ⇒ 비교집단 2: 모든 발달영역에 문제가 없는 단일문화 가정의 영아 10명

2. 연구 방법

2) 실험도구

흥미와 몰입이 가능하고 시각, 청각, 촉각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업화용 그림 카드, 안드로이드 기반 태블릿 PC를 사용



2. 연구 방법

3) 연구도구

(1)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김영태, 홍경훈, 김경희, 장혜성, 이주연(2009)이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까지의 수용 어휘 능력과 표현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

(2) 영유아 언어발달 검사(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 SELSI)

영아의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김영태, 김경희, 윤혜련, 김화수(2003)에 의해 개발된 영아 언어 발달 검사도구(SELSI)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생후 4개월 부터 35개월까지의 영아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검사도구이다.

(3) 교사 저널

말늦은 다문화가정 영아의 언어발달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교사 저널을 활용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1)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계획 및 구성

본 연구는 2020년 12월 07일부터 14일까지 10명의 보육현장 교직원의 **요구도 조사**를 바탕으로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헌 및 관련연구 고찰**, 분석을 통하여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의 시안을 구성하였다. 1차로 개발된 시안에 대해서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22일까지 **총 6인의 관련 전문가와 현장 보육교사의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고 최종 확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2)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목적 및 목표

목적

말뚝은 다문화가정 영아의 언어능력, 어휘력(의미)과 소통기능(화용)을 습득하는 데 있다.

목표(국가수준 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을 참고)

첫째,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

둘째,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수용 어휘력 및 표현 어휘력을 습득할 수 있다(의미).

셋째, 일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화용).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3)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본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요소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2020)의 의사소통 영역 기반

내용 요소	하위 내용
이해 어휘력	표정, 몸짓, 다양한 소리에 관심 갖기 어휘 이해하기 간단한 지시 따르기
표현 어휘력	표정, 몸짓, 다양한 소리로 표현하기 어휘 표현하기
의사소통기술	눈맞춤 하기 공동주의 하기 주고받기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4)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방법

구분	내용	
교수 학습 방법	중재 원리	강화된 환경 중심의 중재 원리(환경 조절, 반응적 상호작용, 환경 중심 교수 방법) 개별화 원리, 통합적 원리
	중재 전략	환경 구성하기, 함께 주목하기, 모방하기, 질문하기 시범 보이기, 반응하기, 모델링, 시간 지연 방법 우발 교수 방법
	중재 운영 방법	개별 활동
	중재자의 역할	관찰자 안내자 상호작용 촉진자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5)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평가

평가시기	프로그램의평가
진단평가 (사전검사)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SELSI)
형성평가 (연구의기록)	관찰법 및 기록법을 활용
총괄평가 (사후평가)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 영·유아 언어 발달 검사(SELSI)를 활용하였다.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6) 예비 검사와 예비 실험

검사도구 및 실험처치의 소요 시간, 내용전개 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함.

◎ 기간: 2021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 연구대상

한국 영아 발달 선별 검사(K-DST)에서 인지, 정서, 신체발달 영역은 모두 정상범주에 속하되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와 영·유아 언어 능력 검사(SELSI)에서 하위 10%에 속하는 영아 중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의 영아 총 4명을 대상으로 실시

◎ 결과,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음.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7) 검사자 훈련

- ◎ 검사자훈련: 2021년 4월 26일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유아교육 전공 석사 3인
- ◎ 훈련내용: 검사 도구 내용과 검사 방법, 검사 실시상의 유의점, 점수화 등
- ☆ 본 연구의 검사 대상자인 영아는 검사 결과에 검사자와의 라포형성 정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긴밀한 협의와 수정과정을 거쳐 진행.
- ◎ 검사도구의 검사자 간 일치도는 90% 이상임을 확인한 후 검사자 훈련을 종료하였음.

(8) 사전 검사

- ◎ 사전 검사 기간: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
- ◎ 연구대상자는 말늦은 다문화 가정의 영아에게 소속된 어린이집 내의 분리된 조용한 공간에서 한 명씩 만나어휘력 검사(REVT)와영유아 언어 능력 검사(SELS)를 실시하였다.
- ◎ 결과,실험집단인 말늦은 다문화 가정의 영아가 비교집단 1, 2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언어능력을 갖고 있었음($p < .001$).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9) 교사 교육 및 협의

- ◎ 교사 교육 및 협의: 2021년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음. 비대면으로 각 1시간씩 3회 실시하였음.
- ◎ 실시 내용: 본 중재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 목표, 목적, 활동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사의 역할 및 유의할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안내하되 테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구현의 기술적 안내에 비중을 두어 진행하였음.

(10) 프로그램의 실시

2021년 5월 10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주 2회, 8주간 총 16회기로 1회기에 20분씩 소요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개별활동으로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진행됨.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10) 프로그램의 실시

언어증재프로그램의 단계별 활동 예시

활동 단계	중기 단계
활동 유형	개별 활동
활동 목표	지시어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다. 명사와 간단한 동사를 연결하여 표현한다. 구현된 화면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활동 내용	- 그릇에 담겨 있는 증강 카드를 영아에게 보여주고 영아가 놀이에 사용했던 도구를 찾아보게 한다. - 영아가 찾은 주방 도구 증강 카드를 테블릿을 통해 보면서 지시어를 따라 한다. - 영아가 화면을 터치하면서 주방 도구를 회전하며 볼 수 있도록 한 후 주방 도구의 이름이 나오면 교사가 그림판에 주방 도구들을 하나씩 붙인다. - 영아가 증강 카드를 내려주길 요청하도록 기다렸다가 시범을 보이고 영아에게 모방하도록 한다. - 수행이 어려우면 교사가 입 모양을 보여주며 영아에게 “주전자 주세요.”라고 말해 보라고 한다. - 도움을 점차 줄여 간다. - 화면을 터치하여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서 크기를 나타내는 낱말을 이해하도록 한다. - 또한 2~3단계 지시에 따르기를 연습한다.
환경	증강 그림판을 소꿉놀이(싱크대) 주변에 부착한다. 소꿉놀이 그릇에 주방 도구 증강 카드를 담아 영아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테블릿 PC를 영아 책상에 배치하여 영아가 관심을 갖도록 한다.

[환경 조절]

2. 연구 방법

4) 연구절차

(11) 사후 검사

2021년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연구에 참여한 말늦은 다문화가정의 영아에게 어휘력 검사(REVT)와영유아 언어 능력 검사(SELSI)를 실시하였다.

(12) 자료분석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증재 프로그램이 말늦은 다문화가정의 영아 언어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1, 2의 사전 검정은 Kruskal-Wallis 검정, 사후검정 및 집단 내 사전-사후 변화는 Mann-Whitney U 검정 마지막으로 집단간 사전-사후 변화는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유의수준은 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보정하여 검증하였고 $\alpha=.05$ 이다.

3. 연구결과

1) 언어중재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첫째,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은 말늦은 다문화 가정 영아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분		M	(SD)	평균순위	χ^2 df=2	사후검정
어휘력 총점	실험 집단 (n=10)	8.50	(3.47)	21.80	8.02***	비교 1<실험 비교 2<실험
	비교 집단 1(n=10)	4.90	(3.28)	11.65		
	비교 집단 2(n=10)	4.90	(1.97)	13.05		
수용어휘	실험 집단 (n=10)	4.40	(1.26)	23.15	11.72***	비교 1<실험 비교 2<실험
	비교 집단 1(n=10)	2.20	(2.15)	11.50		
	비교 집단 2(n=10)	2.20	(1.14)	11.85		
표현어휘	실험 집단 (n=10)	4.10	(2.47)	19.15	2.65	-
	비교 집단 1(n=10)	2.70	(1.57)	13.60		
	비교 집단 2(n=10)	2.70	(1.57)	13.75		

***p<.001

3. 연구결과

1) 언어중재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둘째,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은 말늦은 다문화 가정 영아의 언어 발달(표현·수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M	(SD)	평균순위	χ^2 df=2	사후검정
언어 능력 총점	실험 집단 (n=10)	10.70	(4.76)	25.10	18.26***	비교 1<실험 비교 2<실험
	비교 집단 1(n=10)	2.20	(1.23)	10.15		
	비교 집단 2(n=10)	2.60	(1.90)	11.25		
수용 언어	실험 집단 (n=10)	4.30	(1.70)	25.20	19.00***	비교 1<실험 비교 2<실험
	비교 집단 1(n=10)	1.00	(.82)	10.65		
	비교 집단 2(n=10)	1.00	(.82)	10.65		
표현 언어	실험 집단 (n=10)	6.40	(4.06)	23.80	14.33**	비교 1<실험 비교 2<실험
	비교 집단 1(n=10)	1.20	(.63)	10.25		
	비교 집단 2(n=10)	1.60	(1.26)	12.45		

p<.01, *p<.001

3. 연구결과

1) 언어중재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셋째,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은 말늦은 다문화 가정 영아의 전반적인 언어기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늦은 다문화가정의 영아는 중재 프로그램 시간에 “탈 것”에 관련된 그림책을 보다가 “이건 삐삐 차, 아빠 뽀뽀 차” 등 『정보제공하기』 기능을 문장조합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과일” 그림책을 넘겨보면서 “사과, 남남남, 딸기”라고 말하며 먹는 흉내를 내는 등 『명명하기』 기능을 언어적, 비언어적 양태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영아가 그림책의 사물을 스스로 지칭하여 말하고 그림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산출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보육현장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기능들이 산출되는 것으로 일반화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영아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소리 및 의미 있는 음절들도 산출하기 시작했다.

2021년 6월 3일 S교사

S교사의 일지처럼, 말늦은 다문화가정의 영아는 증강현실을 활용한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능인 “정보제공하기”, “명명하기”를 익혔다. 무엇보다 S교사는 영아가 언어적·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와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양태를 보고했다. 이는 말늦은 다문화가정의 영아가 말로 소통하기보다 몸짓과 표정을 주로 사용하는 초기 의사소통 기능을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에서 그대로 나타냄을 시사한다.

3. 연구결과

1) 언어중재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증강 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 프로그램’은 말늦은 다문화가정 영아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함.

4. 개발 및 효과검증의 의의

증강현실을 활용한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의 의의

말늦은 다문화가정 영아에게 4차산업혁명 시대 요구에 적합한 증강 현실을 활용하여 강화된 환경 중심 언어중재로 말늦은 다문화 가정 영아의 언어능력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인 대한민국 보육현장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음.

감사합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한 언어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효과」에 대한 토론

김혜원

(이화여대 이화사회과학원 연구원)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보육 및 인적자원 개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영아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아기 언어능력 향상에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증강현실 학습도구로 교수-학습한다는 점에서 시대적·환경적 흐름을 포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아기는 급속한 신체발달과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태블릿 PC와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영아기 발달과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연구의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태블릿 PC 기기를 통해 증강현실 학습도구로 다문화가정의 말 늦은 영아의 언어발달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연구한 내용인데, 제 개인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발표문에서 다문화가정 영아의 말 늦은 이유가 다문화 부 혹은 모의 한국어 능력의 정도에 따라 영아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의 부모 이중 언어가 자녀의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영아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애착관계가 영아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발표문의 언어중재 프로그램이 이러한 연구보고들과 함께 논의된다면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우리는 디지털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넘쳐나는 컴퓨터시스템을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봇 등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기계와의 대화에 너무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적응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포근함, 인간과 함께 하는 안정감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 늦은 영아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반드시 전문가의 지도를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방법, 장소 등에 대한 전문가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첫 생애발달 주기인 영아기를 다룸으로써 다문화자녀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발한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말 늦은 영아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확장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영아들의 언어발달뿐 아니라 언어지체를 겪고 있는 자들에게도 단계별 적용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더 넓은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양성 수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평가일원화 방안 연구

발표 : 서경원 (중앙사회서비스원)

2022 한용인-한시질-한다복 연합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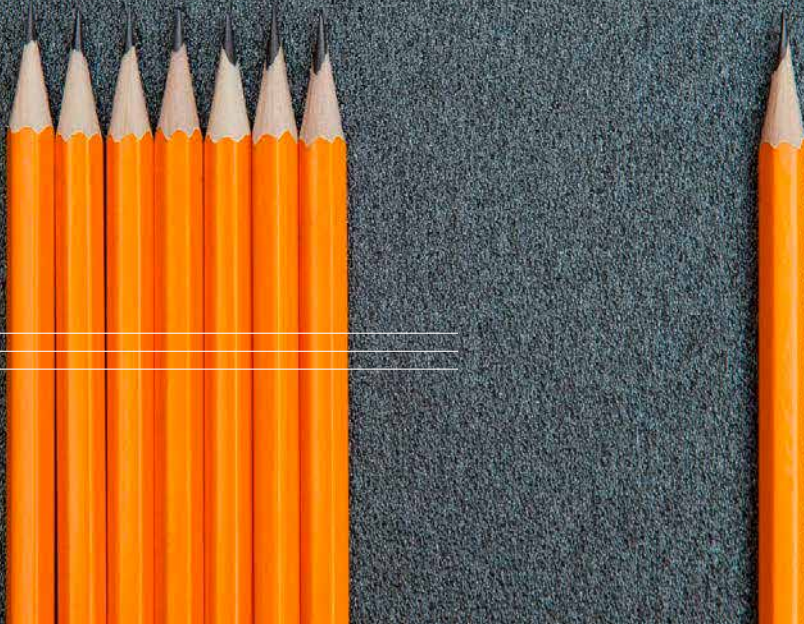
다양성 수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평가일원화 방안연구

발표자: 서경원(중앙사회서비스원)
일 자: 2022. 12. 2.
장 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지훈회의실

kwseo@kcpass.or.kr

Part 1,

서론



사회복지서비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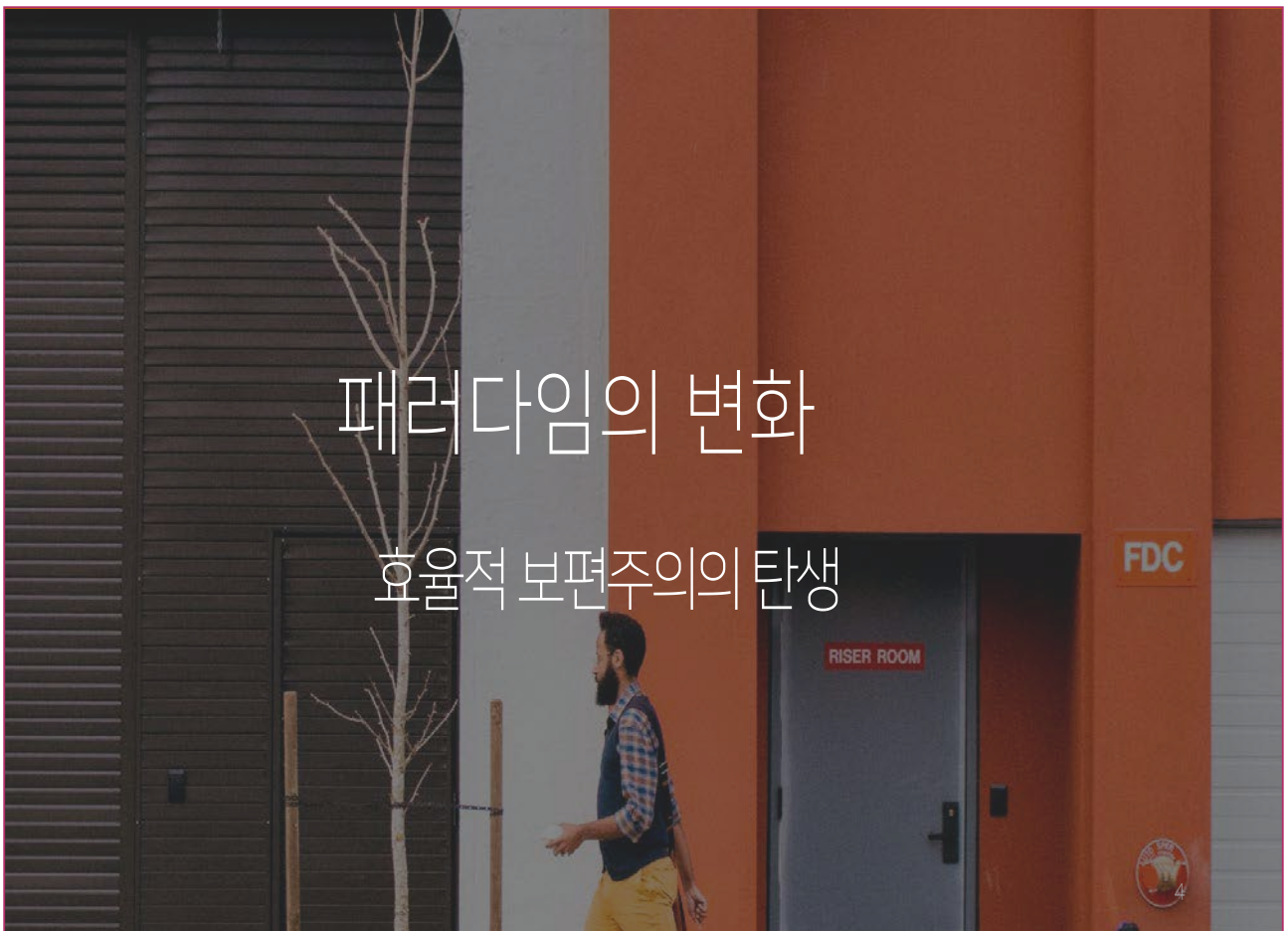
OPEN

사회서비스란?

3

패러다임의 변화

효율적 보편주의의 탄생



우리나라는 빠른 노령화를 인해 8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돌봄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코로나 19의 확산은 취약계층 소득보장 위주의 사회서비스 정책을 전국민
전생애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대상 확대 및 돌봄 안전망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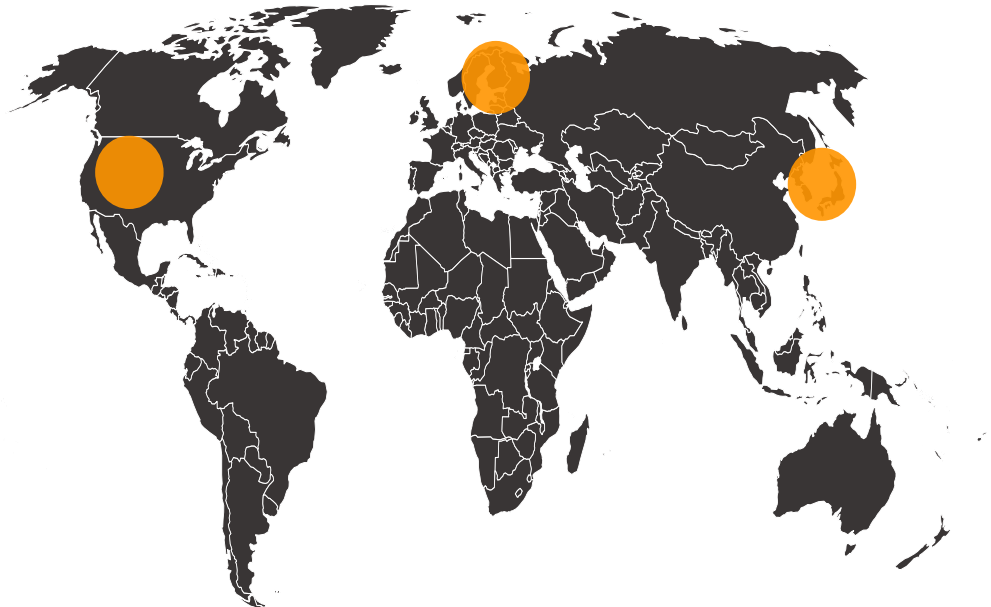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중앙정부, 지자체, 영리, 비영리, 개인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각각의 개별 주체가 역할 부여

5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나라별 사회서비스

현황



지도 출처 © SimpleMaps.com: <http://simplemaps.com/resources/svg-maps>

6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나라별 유형 **A table of contents.**

01 영국

02 스웨덴

03 미국

04 일본

1. 서비스 질향상 및 품질관리제도 정책 통합 관리
2. 사회서비스의 권한 이양, 분권화, 시장화를 추진하고 중앙정보는 품질관리 책임자 역할
3. 이용자 중심의 품질관리

1. 국가 주도형 사회서비스와 지방의 역할 분담
2. 지방정부는 사회서비스의 계획 전달, 감독과 규제는 중앙에서 수행

3. 민간서비스 참여 확대, 옴부즈만 제도

1. 다양한 분예의 인증제도 발전
2. 민간 자율운영
3. 민간서비스가 불충분한 경우 정부가 재정적 역할을 담당 참여

1. 후생노동성의 통합, 복지와 고용에 대한 통합
2. 지자체를 서비스 전달 체계로 활용

구분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품질 관리 기구	CQC	IVO	CMS, JCAHO, CARP, COA	사회복지협의회
품질 관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사회 돌봄 범을 통한 관리 기구 마련 • 중앙차원의 국가 최소품질기준 및 규칙 마련 •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공개 및 옴부즈만 제도 시행 • 개인 예산제 시행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에 대해 개인이 법원에 만원 • 서비스 질에 대해 이용하는 관련 기관에 보고 •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을 통해 국민이 정부와 동등한 권리와 역할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Medicare,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Medicaid 제도를 시행 • Medicare에서 급여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설계한 Medigap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삼자평가제도는 노인분야, 아동 분야, 장애인 분야, 보호 분야를 대상으로 함 • 서비스 사업자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

A

제도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품질 관리 내용 및 특징	영국	스웨덴	미국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대한 기준 마련 미니리딩을 통한 권리와 법적 구속력 확보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관 간 상호 학습 유도 제품심사→현장심사-기관의 내과 및 이용자 기록조사 및 검토 → 필수프로그램 중 일부 포함 → 문제 해결 지원 단계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관리기관은 서비스 활동에 감독 및 보완 시정명령 등 권한을 가짐 management system for systematic quality work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의 활동의 책임, 생산 활동, 위험분석 등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종의 위원회를 통해 11개의 공통기준과 38의 분야로 인증기준을 구분 6개월마다 새로운 기준이 수립됨 인증신청→사립 자재평가 및 평가보고서 제출→현장 방문 조사→인증 여부 결정 단계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일자 평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실시 복지서비스 기관별 질과 조직, 조직의 운영관리, 적절한 복지 서비스 실시로 구분 계약재결→사립은 비서후관식→방문 조사→평가 결과장려→평가 결과공표의 순으로 시행
매우 중요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중심성, 투명성, 책무성을 추구 필수품질기준을 모든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 폭넓은 규제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영의 시민권 권리로 인정 체계적인 전문 훈련 높은 책임을 통한 복지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분야에서 주 정부 자체적으로 인증제도가 발전 민간차원에서 자음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평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대한 과제를 발견하고 조직 전체의 표 향상을 기대 경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전문적인 평가와 후속 조치

B

품질관리



구분	산업 수요	기관 운영	속연도 제고	차우 개선
영국	장애인 노인 취약아동 중심의 사회적 돌봄 시장	공공부조형의 종사기관 제공 방식에 개인 작업교용 지원제도를 부가	국가 작업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 근무 가능	종사자 높은 기관 소속 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으로 실질임금이 상승 (일반근로자 임금 대비 약 43.0% 수준)
프랑스	개인서비스 시장으로 정착 후 노인, 장애인 등으로 돌봄 확대	개인고용, 양선업체 기관고용자 파견 등 3가지 방식을 적용	단순 인증과 서비스 질 인증 등 기관 품질 관리를 원, 연 단위로 실시	사회의 돌봄, 돌봄 비전문직 대비 높은 전문직 임금이 높은 상황 (일반근로자 임금 대비 약 28.1% 수준)
이탈리아	아동 및 장애인 외에 일반국민들까지 포함	-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복지서비스 담당 - 공공기금(70%) 및 민간재원(30%) 지원	- 자격증 유무에 따른 임금 차별화 - 교육훈련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 기관 이윤을 종사자 처우에 투자 - 단체 고용계약으로 민간기업 대비 동일 또는 높은 수준 (일반근로자 임금 대비 약 57.2% 수준)
일본	사회보험으로 개호보험을 도입해 서비스 수요를 유발	간병 노인복지시설 등 6개 기관을 종사기관으로 인정	- 자격증 및 근무연수 등 숙연도 강화 - 교육단위(500시간) 별 서비스 차별화	개호보험 전 가정 봉사원, 후원비 대비 임금수준이 상승 (일반근로자 임금 대비 방문간병인 임금은 약 76.1% 수준)

C

돌봄서비스



선택주의

VS.

보편주의

11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제목을 입력하세요

신청주의

VS.

보편주의

12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맞춤형 급여 안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법적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지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종형 급여 안내



13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아동 / 보육

- 가정영양수당 지원
- 0-5세 보육료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생활지원

- 기초생활보장사업
- 장애인 연금
-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

- 초중고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 사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임원자 의료비 지원

임신 / 출산

- 산모·산병에 건강관리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

감염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 요금할인 (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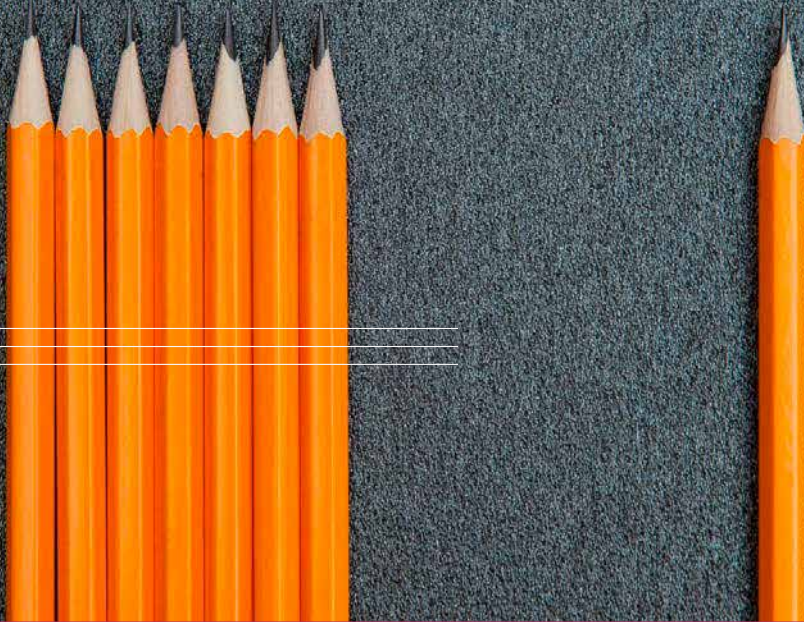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신청

14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본론



15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방향 설정

16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사회서비스 평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및 제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비스 별 평가 운영 중

17

Part 1. 사회서비스 평가 유형

001 >> 사회복지시설평가

(평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평가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 43조2, (평가주기) 3년 1회
(평가대상) 장애인거주시설 등 14개 유형의 시설

002 >> 사회서비스품질평가

(평가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평가근거)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 30조, (평가주기) 3년 1회
(평가대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가시간병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003 >> 장애인활동지원평가

(평가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평가근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 제 25조, (평가주기) 2년 1회
(평가대상) 장애인활동지원기관

18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1. 제목을 입력하세요

004 >> 가정위탁지원센터평가

(평가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평가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0조, (평가주기) 3년 1회
(평가대상)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17개 기관

005 >> 지역아동센터평가

(평가기관)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평가근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 54조, (평가주기) 3년 1회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19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사회서비스 평가절차



20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A

시설 및 운영 :
시설환경
안전관리,
재정 회계,
사업관리 체계

B

조직관리 :
종사자의 전문성,
인사관리,
업무환경 및 권익보호

C

서비스제공 및 성과 :
서비스 수행,
이용자 만족도

21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D

이용자의 권리 :
인권침해 예방,
개인정보 관리

E

지역연계 :
지역 내 자원의 확보,
외부 기관 협력

F

현장평가 의견 :
전반적인 수준,
서비스 향상 노력

22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A. 시설 및 운영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편의시설의 적절성	운영체계	사업관리	시설 안전 및 응급상 황 대처	종사자의 실천 활동
안전관리	-	기관운영의 체계적 관리	재정	사업계획서의 체계성
응급상황 및 화재예 방 안전체계	-	재무 회계 관리	-	시설 및 환경
사업비	-	-	-	회계 관리
법인전입금 및 후원금	-	-	-	후원금 관리
회계의 투명성	-	-	-	-
사회적 가치실현	-	-	-	-

23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B. 조직관리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직원 총원률	제공인력 관리 및 교 육	인력관리	조직운영	종사자 의무교육
직원 근속률	직원복지	자격요건 및 채용절차	인력관리	아동출결 관리 및 5 대 의무교육
직원 교육활동비 및 교육참여 시간	-	복리후생	-	-
직원채용의 공정성	-	-	-	-
시설장 등의 전문성	-	-	-	-
직원교육	-	-	-	-
직원복지	-	-	-	-

24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C.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기본사업 계획의 전 문성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위탁가정의 모집 및 교육	문화프로그램
본사업 운영평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품질관리	위탁아동의 보호 신 청과 배치	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행	서비스 관리	서비스 제공 결과	사정	특화프로그램
-	서비스 종료	-	서비스 계획	개별아동관리
-	이용자 유지율	-	사례회의	일상생활관리
-	이용자 만족도	-	서비스 실행	아동 정서지원
-	제공인력 만족도	-	모니터링	보호자 참여지원
-	-	-	사후관리	-
-	-	-	부모지원	-
-	-	-	자립지원	-

25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D.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비밀보장	고충처리	-	정보화	아동의 권리 보장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서비스 제공 및 평가	-	-	아동자치회 운영
고충처리	서비스 관리	-	-	-
-	이용자 불만처리	-	-	-

26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E.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외부자원개발	서비스 종료	기관정보 및 지역사회 협력	지역연계	-
자원봉사자 관리	지역사회 연계	-	홍보	-
후원금(품) 개발 및 관리	-	-	-	-

27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2. F. 서비스 제공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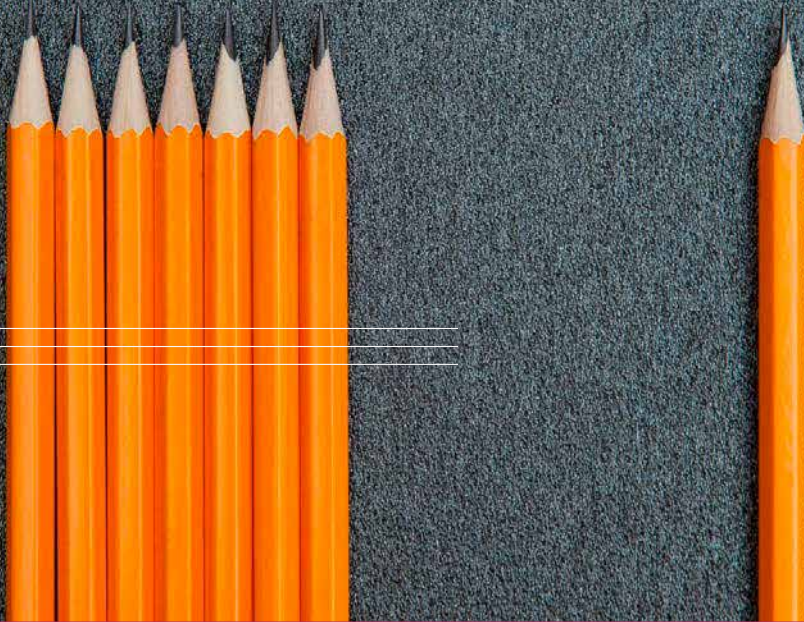
사회복지시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시설운영의 전반적 수준	평가전반	기관의 전반적인 노 력	-	-
서비스 질적 수준	-	-	-	-
자체평가의 정확성	-	-	-	-

28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Par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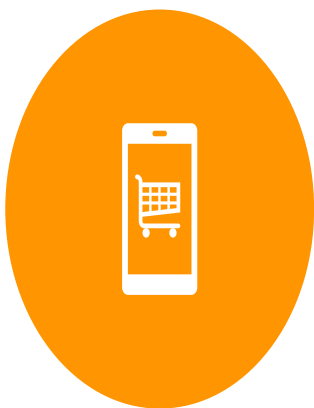
결론



29

개선안

지속가능한 경영 : 사회서비스&평가(인증) 발전 방향



플랫폼



정보/빅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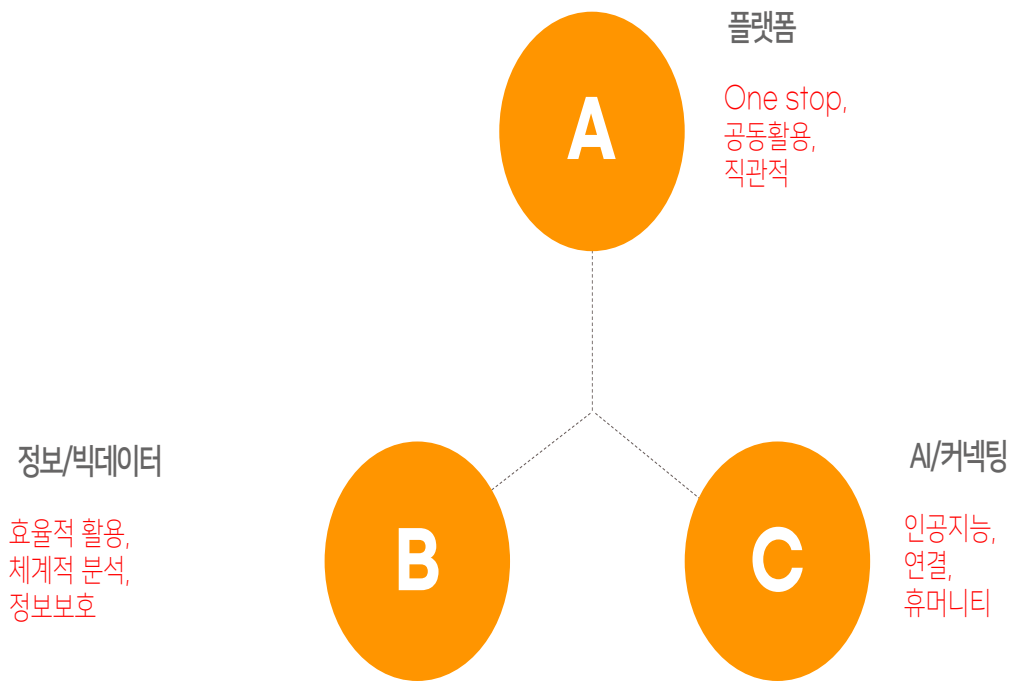


AI/커넥팅

30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서비스 중심 통합 모델 개발



31

©Saebyeol Yu. Saebyeol's PowerPoint

大韓民國
國民



32



감사합니다

33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제도 통합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

박범기

(한독교육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1.

본 발표문의 주제인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제도 연구'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발표자께서 서두에 논한 것처럼 고령사회의 대두 및 코로나 19와 경제불안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증가는 돌봄으로 구현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주목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한 개인에 대한 전생애 주기와 매칭되는 사회복지의 공급문제는 주요한 복지행정의 화두가 된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지 이용자에게 공급만 한다고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는 시스템에 의해 조율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이용자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어 종사자의 부담감등만 가중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평가제도'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논의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

영역	문제점
평가기조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 반영 미흡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성 약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평가참여 부족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써 존재 현장의 평가에 대한 의견 반영 미흡 대도시 중심의 평가체계로 중소도시에 불리한 상황 평가대상시설 및 제외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족 타 평가제도와의 중복 및 정책불일치에 따른 현장 혼란 존재
평가내용	평가 측정내용 중심의 사업운영과 경직된 운영

영역	문제점
	<p>일률적인 평가지표와 행정편의의 서류 중심 평가</p> <p>지방정부 및 시설점검 등 타 제도와 중복되는 평가내용</p> <p>중복평가로 인한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요소 발생</p> <p>정량적 판단 중심과 불합리한 예산중심 판단지표</p> <p>단순화된 확인 중심의 평가와 수량화의 한계</p> <p>현장의 요구와 평가지표의 불일치</p> <p>시설의 특성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통지표 중심</p> <p>현실의 시설운영에 부합하지 못한 평가지표</p>
평가과정	<p>평가위원 사전교육 부족, 평가위원 간 편차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 저하</p> <p>평가과정에서의 준비와 대응, 과도한 자료준비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종사자의 업무부담</p> <p>평가주체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p> <p>평가과정의 시간적 오차 및 해석의 차이 존재</p> <p>평가과정에서의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객관성 저해</p>
사후관리	<p>실효적인 유인기제와 징벌체계의 부족</p> <p>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미비</p> <p>서열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p> <p>서열화 방식의 평가등급 고착화</p> <p>우수성과 및 미흡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체계 부족</p> <p>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도 저하</p> <p>합리적 인센티브 부족과 다양성 부족</p> <p>평가 후 재정 및 인력지원 등의 사후관리 미흡</p>

*자료: 이영범 외(2020). 사회서비스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가령 이영범 외(2020)가 수행한 사회서비스 평가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상기의 표에 정리된 것처럼 사회서비스 평가 중 사회복지시설평가만 하더라도 다양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인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과정, 사후관리 즉 평가의 설계단계부터 A/S단계까지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의 입장을 도외시하며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실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제외되는 점, 평가를 시행하는 평가위원들의 역량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및 공정성 문제, 평가결과 활용도의 유명무실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는 발표자가 논한 대로 사회서비스 평가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개선논의가 바로 '사회서비스 평가시스템의 일원화 방안'이라 봅니다.

2

발표자의 발표문을 훑아보며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한국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정책운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일원화되지 않는 실태를 논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다양한 운영주체의 실태와 대비해 영국이나 스웨덴의 일원화된 사회서비스의 제도와 시스템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2) 우리나라의 시설 및 운영이 사회복지시설, 품질평가, 장애인활동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로 나뉘어 서비스 제공 및 평가를 하는 실정을 보여주셨고 서비스 중심 '통합' 모델 개발을 위한 대안도 제언해 주셨습니다.

3.

본 발표문을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지점이 생성 되어서 본 토론문에 기술하고자 합니다.

1) 사회서비스 평가일원화의 체계 즉 구조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이영범(2020)의 사회서비스 평가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사회서비스 평가의 2대 근간이 사회복지시설평가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입니다. 이 2개의 평가시스템은 중앙정부에서 설계자 및 책임자의 역할을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특수성 및 시설의 차별성을 반영한 질적 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평가는 상시적 환류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시설 및 평가 우수기관은 인센티브 적용으로 미흡기관은 개선조치에서 퇴출 등 별칭적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봅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평가체제는 우리나라에서 분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활동지원법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노인요양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보육법에서는 한국보육진흥원이 각각의 법률대상의 품질 및 평가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영역별로 분산된 품질관리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법률이 입법화되고 이 법에 근거한 가칭 '사회서비스 품질관리감독원' 같은 전담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2) 위와 같은 논의가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선진국의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특히 본 토론자는 발표자께서 언급한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토론자가 논의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관련 품질 등의 전담기구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원화 시스템이 영국과 스웨덴에서 모범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2000년에 품질관리법을 제정해 다른 기준들을 적용했던 150개 지방정부의 서비스의 관리를 일원

화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담기구인 보건사회서비스 질 관리 위원회(CQC : Care Quality Commission) 일명 CQC를 통해 통합적 전달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스웨덴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사회서비스를 주도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회서비스 전담기구인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 : Inspektionen för vård och omsorg)를 성공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본 토론자는 상술한 2 국가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드립니다.

4.

본 연구의 주제는 상당한 연구 가치와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발표자께서 본 주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정리 해주시면서 4차 산업기술과 연동된 대안을 논해주셔서 사회서비스 평가와 이에 대한 일원화와 관련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토론자가 논의한 지점들도 연계해 고민해 본다면 생산적인 연구물들로 전화(轉化)되리라 기대됩니다. 발표해 주신 서경원 선생님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진행 : 임은의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 극동대학교)

2022년 연합학술대회 (한국사회적질학회, 한국다문화복지학회, 한국융합인문학회)

연구윤리 강화 워크숍

Q & A를 통해 보는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진행 : 임은의(한국다문화복지학회 회장)
일자 : 2022. 12. 2. 16:50
장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지훈회의실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IV. Q&A

-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 중목계제, 이중계제,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 중목계제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기준은?
- 인용의 의의와 올바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 표절 금지 등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시효는?
-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재구성하기 어려운 메인프레임을 출처표시를 하고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가?
- 정책연구를 위하여 해외자료의 번역 요약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양적주중관계나 2차문헌 표절로 지적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2차 문헌을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2차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시해야 하는가?
-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술지 및 정책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중언어로 발행된 연구물은 중목계제 위반인가?
- "이 장 : 절은 ○○○의 XXX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되었다"라는 출처표기는 잘못된 출처 표시인가?
-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단락에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 출처표시에 공중저자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로 볼 수 있는가?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의도하지 않았거나 모르고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쓴 경우도 표절인가?

- 표절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하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렇지 않은가와 관련됨. 기본 원칙은 자신의 저작물에 신중함에 있어 의존했던(인용된) 모든 저작물의 원저자에게 존중과 감사의 표시로서 정확하게 출처표시를 하는 것임.
- 물론 의도하지 않은 표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타인의 그것이 혼동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음.
 - 의도적이지 않은 복사 또는 빌려오는 것도 표절(무연적인 표절, accidental plagiarism)이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자신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글을 자신의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쓰는 경우임.
- 연구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면서도 정확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속일 때 표절이 발생함. 따라서 표절은 처음부터 타인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신의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된 경우든 모두 해당됨.
 - 표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신이 활용하는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지 않아 발생하므로 타인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 독자에게 그 출처를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어야 표절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항상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가?

-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즉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일반적인 지식(common knowledge)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표절이 아님.
 - 일반적 지식이란 간단히 말해 그것이 사용되는 학문 공동체의 사람들(그 논문을 읽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지식(상식)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써도 표절이 아님. 이를테면, 만유 인력의 이론을 언급할 때 때만 해당되는 뉴턴의 이론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됨. 학술논문에서는 그 분야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는 일반적 지식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됨.
 - 종합 및 협동 연구의 경우, 그 결과를 다른 분야의 전문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때 주 저자들의 일반적 지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 분야 학술지에서는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에 대해 다른 분야의 논문 심사자들은 출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자신이 쓰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인용을 하고 출처를 밝히어야 함.
- 타인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 틀을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표절에 해당됨.
 - 예를 들어 어떤 분석 모형이나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미 분석 및 기술해 놓은 것을 거의 그대로 또는 발해하여 가져다 쓰는 경우 표절에 해당됨.
 -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일바꿔쓰기하거나 요약한 경우라도 타인의 독특한 사고나 논리 전개의 틀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면 반드시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어야 함.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중복게재, 이중게재, 자기표절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가져다 후속 저작물에 활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다시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중복게재 (redundant publication) 또는 자기표절(self plagiarism)이라고 함.
- 국내·외에서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합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도덕적 문제뿐만 아니라 저작권 출판시 저작권이 해당 학술지에 이양된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함.
- 자기표절이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대학이나 학회 등에서는 사용 빈도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표절, 중복게재, 이중게재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중복게재라는 용어로 통칭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임.
 - 중복게재,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자기표절은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혼용하거나 구분하여 쓰기도 하지만,
 - 그럼에도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이미 한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두 번째로 게재하는 것이 이중게재라면, 이전 저작물의 일부분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것은 중복게재라고 할 수 있음.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중복게재에서 중복성 여부 판단 기준은?

-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학술지에 이미 발표한 자신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거나, 그 저작물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다른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함.
- 중복게재는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유사하거나 "동일한(identical)" 것을 이후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교되는 두 연구 결과물이 같 그대 (거의) 똑같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보고서나 논문의 제목이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이 같거나, 서론이나 결론 부분의 일부가 조금 바뀌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동일한 경우가 "동일하다는" 의미의 예임.
 - 실질적으로 유사한(essentially similar)이라는 말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물과 이후의 연구 결과물의 연구 방법론, 연구 구조, 내용, 논의(토론), 결론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으로, 핵심적 논지가 변화되지 않고 결론도 다르지 않아 비교되는 두 저작물의 질적 차이가 없는 경우임.
- 그러나 학술지에 실린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을 위해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 비학술단체의 저널(발간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되지 않으며, 학술지와 학술지 사이의 경우에도 뒤에 발표된 저작물에서 이전에 발표된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고 학술 편집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중복게재가 아님.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동일 내지 거의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다년도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이전 보고서의 내용을 일정한 부분 가져다 쓸 때 출처 표시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다년도 과제임이 해당 출간물 내에 명시되어야 함.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 비슷한 주제의 연구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연구 결과의 발표 선후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상호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 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이때 출처 표시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중복게재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연구자 1인이 본의 아니게 비슷한 주제의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후행 연구기관의 연구 관련 책임자에게 선행 연구의 개시를 알리고 계속 진행 여부를 타진해야 하며,
- 만일 계속 진행해도 좋다는 허락이 있었다면 일단 양쪽 연구의 서문이나 기타 적절한 지면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이후 연구 결과가 공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쇄나 재판의 경우에 먼저 발행된 연구 결과에 대한 출처를 표시해야 함.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인용의 의미와 올바른 출처표시 방법은 무엇인가?

- 인용의 원칙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연구자는 다른 저작물을 인용할 때 인용자들이 그 출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용된 저작물의 서지정보(전자자료 포함)를 정확하게 표기
 - 연구자가 인용하는 분야는 자신의 저작물이 추가 되고 인용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되는 적절한 범위 내
- 타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 해석, 분석 등을 통해 독창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 가급적 나의 저작물에서 타인으로부터 가져온 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며,
 - 타인의 저작물을 빌려와 이루어진 나의 저작물이 그에게 지적재산권의 피해를 줄 정도로 빌려와서는 안 됨.
- 연구자는 올바른 인용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인용의 방법을 숙지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기(verbatim copying), 일부 단어를 말바꿔쓰기(paraphrasing)를 하거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할 때(summarizing),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는 타인이 가리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해야(cite)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쓸 때는 해당 부분은 인용 부호(" ")로 표시해야 함.
 - 타인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말바꿔쓰기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 자신의 색임이 담긴 언어로 표현되도록 하여 출처를 밝혀야 함.
 - 연구자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의견, 비판점이나 역사의 사실은 직접 인용하는 말바꿔쓰기를 하는 출처를 밝혀야 함.
 - 기술하는 사실이나 아이디어가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출처를 밝혀야 함.
 - 웹 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자신이나 타인의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자료나 정보를 활용할 때처럼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
 - 통계 자료와 같이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는 출처를 밝혀야 함.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정책연구를 위하여 해외자료의 번역 요약은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는 양적주증관계나 2차문헌 표절로 지적된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 아무리 정책연구라고 해도,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활용할 때는 인용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해야 함. 해외의 자료나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종 관련 내용을 직접 번역한 후, 이를 요약 내지 말바꿔 쓰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출처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절에 해당됨. 해외 자료의 번역이 2차문헌 표절로 판단되는 경우는, 연구자가 직접 원문을 보고 번역 내지 번역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말바꿔쓰기를 하지 않고, 1차로 소개한 문헌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마치 원문을 직접 보고 활용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발생함. 그러므로 해외 자료 번역의 경우 2차문헌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인용 표시를 정확하게 하거나 해당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연구자의 글쓰기 방식으로 표현해야 함.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2차 문헌을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2차 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시해야 하는가?

- 연구자는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을 찾아 1차 인용한 내용이나 출처가 정확한 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활용해야 함.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고, 직접 원문을 찾아 확인하여 자신도 인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2차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옳음. 만일 연구자가 2차문헌만 보고 원문을 보지 않았다면 2차문헌에 대해 출처표시를 해야 함. 그러나 2차문헌만 보고도 2차문헌과 함께 원문의 출처도 표시하는 경우는 독자나 후속 연구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임. 이때 예도 원문을 찾아 1차 인용한 맥락이 적절하고 페이지도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차문헌을 통해 원문이 있음을 알고 그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원문을 직접 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처럼 해서 안 된다는 것임.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술지 및 정책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중언어로 발행된 연구물은 중복게재 위반인가?

- 어떤 학술지나 정책연구의 발전을 위해 이미 출판된 학술지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다른 독자층에게 널리 확산한다는 취지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에는 번역의 목적과 필요성, 해당 학문분야의 특성, 사용된 언어와 소속 연구기관의 출판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그렇다하더라도 이미 어떤 연구 성과나 자료(data set)가 공개되었다면 그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야 함. 그래야 그 논문이나 저서를 읽는 독자들이 마치 처음으로 발표된 것처럼 오해를 하지 않기 때문임.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이 장·절은 ○○○의 ×××의 자료를 인용하여 구성되었다”라는 출처표기는 잘못된 출처표시인가?

-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부적절한 출처표시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즉, 타인의 저작물의 어떤 장·절의 내용을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말바꿔쓰거나 요약한 경우 “이는 ○○○의 ×××의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했다” 라는 출처표시가 적절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직접 가져왔으면서도 참조 혹은 재구성했다고 말하는 것을 올바른 출처표시가 아님. 왜냐하면,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를 쓸 때, 직접 인용하면서도 간접 인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원저자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이는 것이 되기 때문임.
- 한편, 국책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소개(검토)하거나 방법론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을 말바꿔쓰거나 요약할 때, 특정한 표 또는 그림이 아닌 부분을 포괄적·개괄적으로 출처표기한 경우에는 표절로 보지 않음.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가? 단락에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출처표기를 해야 하는가?

-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을 구분하는 아주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은 인용부호(" ") 또는 인용 단락인용되는 내용을 줄을 바꾼 후 본문보다 좌우 여백을 더 주거나 글자 크기 및 글자체를 달리하기 등이 있으면 직접인용이고, __에 의하면(따르면)으로 시작하면 간접인용에 해당됨. 직접인용은 원저자의 표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간접인용은 인용한 부분을 원저자의 핵심 논리나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으면서 이용하는 사람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함. 만일 한 단락에 간접인용과 직접인용을 동시에 해야 할 경우, 간접인용을 하는 중에 직접인용된 부분을 인용부호(" ")로 표시하면 됨.



연구윤리 의심행위 판별



출처표시에 공동저자 중 일부 저자가 누락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로 볼 수 있는가?

-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저자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됨. 또한 저자표시를 누락하였을 때 만일 저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저자로 표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는 명백한 저자표시로 판단됨. 그러므로 공동 연구의 경우,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자로서의 역할 및 순서에 대해 민주적으로 정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음. 또한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자의 자격을 부여해야 함.

발표를 마칩니다
